

거창가라



[해제]

<거창가라>는 <거창가>의 이본이다. <거창가>는 <거창가라>, <아림가>, <아림별곡> 등의 이름으로 된 이본이 전해지고 있다. ‘아림’이라는 지역명은 거창의 옛 이름이다. <거창가라>는 거창의 현실을 비판한 현실비평가사인데, ‘이재가’라는 수령의 탐학 현실을 고발한 가사이다. 이재가가 수령으로 내려온 이후 거창에서 자행되는 핍박을 상세하게 고발하고 밝힌 작품이다. <거창가라>는 「거창부폐장초(居昌府弊狀抄)」라는 소장(訴狀)을 바탕으로 쓰인 점이 독특하다. 「거창부폐장초」는 이재가라는 수령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창의 탐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를 올리고 초(抄)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가사 <거창가라>를 이 「거창부폐장초」와 대비해보면 내용이 거의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거창부폐장초」를 바탕으로 가사 <거창가라>를 창작한 것이다. <거창가라>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이질적이다. 전반부는 한양의 흥성스러운 풍물 소개와 태평성대의 구가(謳歌)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며 후반부가 거창의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원적 서술 구조라 할 수 있다. <거창가라>는 향유 과정에서 서술의 초점이 전반부로 이동되어 향유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해지는 이본 중 이른 시기의 텍스트들은 후반부에 무게 중심이 두어져 서술되는 데 비해, 늦은 시기의 텍스트들은 전반부에 무게 중심이 두어져 서술된다. 그 결과 아예 거창의 탐학 현실을 소개하고 있지 않은 이본도 발견된다.

[원문]

庚子正月日

庚子

⊗⊗⊗⊗⊗

⊗居昌歌

<⊗>⊗⊗湖南歌

경인 오월 일이라

거창가라

익운처사경독가 호남가

어와친구 벗님네야 이니말삼 드러보소
 역여갓튼 천지간의 부유갓튼 우리인칭
 초로갓치 시러지니 아니노든 못하리라
 우주 의 빗거서서 팔도강산 구버보니
 익두산 일지릭의 삼각산 삼거잇고
 덕영 흐른물리 한강수 되야서라
 천련산 만련수의 거록하다 우리왕기
 인왕산이 주산이요 관악산이 안디로다
 질마지가 익호되고 왕심이가 청룡이라
 무학의 소점으로 정도전의 직혈이라

디명홍무 이십오연 한양성의 복지하니
 니연의 성읍하고 삼연의 성도로다
 취지여일 하난중의 망지여운 하것구나
 천상의 벽리화을 완산의 씨을바다
 함흥의 움것다가 한양성의 붓도두니
 천지만엽 도든가지 금실옥실 밭짓구나
 산호산호 직산호며 천세천세 천천세라
 오정역사 거라리고 허다궁궐 창성하니
 인의예지 문을다라 팔조목을 버려서라
 경복궁 지은후의 인ᄇᆞᆫ전 지여니니
 응천상지 삼광이요 비인간지 오복이라
 퍽각사 버려두고 원갓시정 포치하니
 하도낙서 바돌체로 여기저기 헛터있다
 기자성인 닥신법도 황방촌이 쏜을바다
 삼강오륜 발근중의 군의신총 더욱장타
 주천자 오등작을 삼천팔퍽 니외관원
 뉘아니 충신이며 열사가 몇몇친뇨
 의정부 상당상은 주공소공 보필이며
 이호예병 형공조은 팔원팔괘 직국이라
 북ᄇᆞᆫ씨의 팔괘체로 팔도감영 버려서라
 괴린각 괴린조사 삼퍽육십 직목이며
 오형문 장한군병 황석공의 진법이요
 흘련영 도감표수 오천칠퍽 이른두명
 제갈무후 팔진도를 나랄이 괴련하며
 삼산의 봉화소식 사방이 안연하다
 선혜청 말이창은 소상국의 국양이며
 호조의 집의서리 예수의 산법인가
 광상강 천문과수 용성의 조역이며
 정원의 형방승지 양티부의 문장이라
 형조의 설당상과 금부의 관익금은
 고요의 나문정계 직설의 법을외와
 전옥의 주부덜은 장석지의 청필일네
 십자가상 도라드니 종누가 거기로다
 서촉 동산철을 바리바리 실러다가
 디풍괴 불러니니 만팔퍽연 쇠북이라
 이십팔숙 삼십삼천 조석으로 개퍼하니
 하우씨의 구정인가 제도도 거록하다
 영제의 일중위시 퍽물시정 버렸난디

도불십유 하난풍속 갈천세계 실절인가
용산삼지 모든비는 황제헌원 지은비요
구리기 구버보니 실농씨의 유업이며
광충기의 노리소리 강구의 동료로시
인정전 늬품집의 오헌금 남풍시을
빅공이 상화하니 건곤일월 발가도다
장학원 풍악소리 공상각치우 오음육울
소소구성 말근곡조 봉학이 춤을춘다
한강수 지핀물의 용마하도 낮단말가
박석치 너머튼니 톱학관이 거기로다
성균관 장한집과 명윤당 빗난집의
우리부자 주벽되야 안증사임 빅횡하고
그남은 칠십이헌 삼천무도 시위중의
아동방 제딤헌도 채예로 승무하니
장하고 거록하다 우리조선 의관문물
소중화라 이른말삼 이제와 아난바라
티조디왕 성덕으로 사칙여연 닐려오며
일출이작 일입이식의 함포고복 하난빅성
남흔여가 질거움은 톱평연월 그뿐이라
장하다 계명구폐 사경의 드러쏘다
임진왜풍 병자호란 중간 지친근심
헌원씨와 염제로되 치우의 란을당코
탕무의 성덕으로도 정별이 잇셔시며
그남은 셔절구투 엇지다 기록하리
웬술네라 웬술네라 갑오연동지참 원술네라
여상고비 하난비회 심산궁곡 일반이라
하날갓튼 디왕디비 일월갓튼 자성전하
티임의 덕이신가 선인황후 법을바다
수렴청정 하신후의 팔역이 완연하다
도광심철연 신축연의 우리성상 즉위하사
춘추방성 심오세에 한소제의 총명이며
주성왕 어린임군 팔빅연 기업이니
우리전하 어리시되 팔천세나 바리나니
작연도 풍연이요 금연도 풍연이라
천무열풍 음우하고 히불양파 하것구나
가급인족 하련이와 국티민안 조흘시고
입아증민 빅성덜아 어서가고 자조가자
돈화문의 걸인윤음 한무제의 조셔신가

초목군심 질거음도 이도또한 성화로시
장안청루 소연덜아 험탄비응 하련이와
티평곡 격양가을 이니노리 드러보소
어제청춘 오날척발 넌들아니 모를쏘냐
창희일속 우리인심 후회한들 어니하리
장딴의 고흔제집 네숫조타 자랑마라
서산의 지난히을 뒤라셔 금할소냐
동희의 흐른물걸 다시오기 어려워라
뒷동산의 지난숫선 명연삼춘 다시피되
우리인심 늘근후의 다시소연 어렵쏘다
낙양성 심이외의 높고난진 저무덤은
영웅호걸 몇몇치며 절딴가인 뉘기뉘기
우락중분 미씩연의 소연헝낙 편시춘을
기벽후 나린사적 역역히 드러보소
요순우탕 문무주공 공잉안증 정주부자
도덕이 관천하야 만고성인 되얏서라
요마한 후싱덜아 이를말삼 아니로시
그나문 고릭영웅 낫낫치 시야르니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방궁 사랑삼고
말이장성 단장안의 억만세나 빗계서라
육국제후 조공하고 삼천궁여 비겨서라
삼신산 멀고먼디 원하난빅 불사약을
동남동여 오릭인이 소식조자 돈절하며
사구평디 저문날의 여산청총 속절업다
우산의 지는히난 제경공의 눈물이라
분수의 추풍곡은 한무제의 실품이라
불상타 용방비간 만고총신 이언만은
총신즉간 쉰딴업셔 죽엄도 차목하다
장하다 퍽이숙제 천추고절 일너시되
수양산 지퐁골의 처미곡이 처량하다
강티공 황석공과 사마양저 소빈오기
전필승 공필취의 용병이 여신하되
못첫난이 엽나국을 한번죽엄 못면하고
면산의 봄이드니 기자추의 무덤이며
삼강의 썩닌조수 오자셔의 정영이며
명나수 지퐁물의 굴삼여의 총흔이라
말잘하는 소진장의 천하을 횡횡하며
육국제후 다친하되 영니왕은 못달니야

세우야 두건성의 영혼이 울어잇고
링상군의 계명구폐 신릉군의 절부고명
전국시 호결이되 삼천식각 헛터두고
황산세우 지훈밤의 일부토가 가련하다
역발산 초피왕은 천하장사 이언만은
시불이혜 추불세 팔천병 헛터두고
우미인 손을잡고 눈물노 하즉하며
오강풍낭 수운중의 칠십여전 가습로다
운주유학 장자방과 동남풍 제갈공명
천문지리 중찰인의 만고조화 가졌시되
절통타 한번죽엄 조화로도 못면하고
사마천 한퇴지와 리퓌릭 두자이며
제일문장 이언만은 장싱불사 못히잇고
독횡천리 관운장은 명진천하 하엿서라
거록하다 명축달조 천추름름 쏘이로다
장판영웅 장익덕은 편비의계 죽단말가
외만한 위왕조조 당돌하다 오왕손권
삼분천하 분분중의 이도쏘한 영웅이되
동작딴 석두성의 영혼이 자초업고
부춘산 도라드니 엄자름 가딴업고
진처사 도련명은 집터만 비여잇고
왕사의 장한풍유 연자만 나라든다
곽분양 빅자천손 일시호강 쏘이라
도주의돈 석송이난 부자중 웃씀이라
일싱일사 한정잇셔 갑시로도 못사닌고
월서시 우미인과 왕소군 양귀비난
선후천련 닢러오며 경국지식 가졌시되
월티화용 어린아자 진익중의 못처잇셔
추우엽 낙오동 영혼이 실패울고
팔퓌연 핑조와 삼천갑자 동방식도
피일시 차일시라 죽어지면 그만이오
안기싱 적송자는 동희상 신션이라
귀로만 드러잇제 논의로난 못보와라
한실퓌중 사호션싱 상산이 멀엇서라
천지도 기벽하고 일월도 효명커던
하물며 우리인싱 천만련 장싱할야
춘화홍 추엽낙은 세월이 덧업난이
이러한 퓌평성세 아니놀고 무엇할리

조선삼척 이십팔주 간곳마다 퍽평하다
 엇지타 우리거창 시운이 불헝하야
 일경이 도탄되고 만민이 구갈하니
 요순의 성덕으로도 사흉이 잇셔시며
 제위왕의 명감으로도 아대부 잇단말가
 일월이 박것만은 복분의 난조하고
 춘양이 표덕인덜 음양이 미칠손나
 이지가 어인자며 저자가 어인자인고 〰〰〰〰本官姓名
 거창이 퍼창되고 직가가 망가하리라
 제리난 간리되고 퍽수가 원수로다
 척방이 취방하고 진사가 다사하다
 어와세상 상전임네 우리거창 폐단보소
 직가라 닳러온후의 원갓폐단 일어늬되
 구중철리 멀고먼디 이런민정 모르시고
 징청곽 늠흔집의 광풍찰속 우리순상
 읍보만 준신하니 문불셔양 안일년가
 리로포 만여석을 퍽성이 무삼죄로
 수천석 포음이되 미한기 치지안코
 두식곡 물이지안코 퍽성의계만 물려늬니
 덕전통편 조목중의 이런범쏘 어드잇단말가
 이천사퍽 방채전이 이도쏘한 이포여닐
 결복의 붓처다가 민간의 출증하니
 왕세가 소중커든 요망한 아전포음
 왕세의 붓처다가 임으로 작간할가
 호수도 퍽성이라 쏘다시 원통시계
 아전포음 수쇄하니 비단금은 폐단이라
 명연가고 우명연의 몇천연 폐단이야
 본읍지경 둘러보니 삼가협천 안의지레
 사읍중의 처하여셔 미연결복 상정할제
 다음은 열한두양 민간의 출증하고
 본읍은 열엿일공양 연연이 가증하니
 다왕민은 일반인디 왕세을 갖치하며
 엇젼타 우리거창 두석양식 가증하고
 근력의 낙강성천이 구산갓치 싸엿시되
 절통타 이니퍽성 직한짐도 못하더라
 직결이 회답흙은 묘당처분 잇건만은
 묘당처분 저지결을 중간투식 뉘하는야
 가포중 낙침포은 제일노된 가포라

낙성포 한당변을 일횡의 폐침하니
적으면 칠팔씩양이요 만하면 일이만양이라
모야무지 남모르거 칙방으로 드러가니
이가포 한당변의 몇몇집이 등산한야
그맘은 허다가포 수록군병 더저두고
선무포 제변포는 이리보 노령보라
각식다른 저가포을 빅가지로 침착하니
집담사리 밧담사리 큰아기 자근아기
어서가고 밧비가자 획장청의 잡퍼단다
전촌의 지는기는 관자보고 소리치고
뒷집의 우는아가 이괴왔다 우지마라
일신양력 원통중의 황구총정 가련하다
싱민가포 더저두고 빅골증포 어인일고
황산고총 노방가세 네신세 불상토다
너주근지 멧히관딤 가포돈이 어인일고
관문압폐 저송사정은 죽기도 셉것만은
주근송장 다시파서 빅골포양 처랑하다
학정업시 치민하면 회곡형위 거조하야
사오연 닢러오며 탐학이 자심하다
기과천선 아니하고 무죄빅성 죽계하네
학정도 하련이와 남살인명 어인일고
한유탕 정치광과 전부인 강일싱야
네의죄 무삼죄로 장하의 죽단말가
보름만의 죽은사람 한달만의 죽난빅성
오륙인이 되얏시니 그적원이 어딤미요
흉악하고 분한말을 쏘다시 드러보소
정유연 시월달의 적화면의 불이난네
우거양반 김일광으계 선무포가 당탄말가
김일광 나간후의 히면면임 수쇄할제
양반니정 돌입하야 청춘부여 쓰어니니
이러한 예의방의 반상분명 중한중의
남녀유별 지엄커든 상언픽담 하감으로
두발부예 하단말가 장하다 저부인이여
일언욕 당한후의 아니죽고 썰딤업서
빅일이 무광하고 청산이 욱열이라
삼신연분 이싱언약 쓴구름이 되얏서라
만리전정 이니목심 일검하의 죽단말가
만경창파 물을지러 이니분함 시치고저

남산록죽 수를논들 네죄목을 다알손야
열여정문 고사하고 뒤살도 못시기니
천음우습 실핀밤의 영혼인들 아니올냐
금연사월 보름우박 그설원이 아니런가
청상릭수 우난과부 그뒤신세 처량하네
전싱연분 이싱언약 날발이고 어딴갓요
남산의 지신밧술 어느장부 가라주며
동헌의 이근술을 놀다리고 권할손냐
동지섯달 진진밤의 독숙공방 더욱섭다
엽엽희 우난자식 빅고파라 설운사정
가장싱각 설운중의 죽은가장 가포난네
흉악하고 죽일놈아 너도또한 인륜이어든
가포도 더저두고 치사전례 먼제차자
필필고상 싸는빅을 탈취하야 가단말가
절통타 우난소리 동헌딴공 함계운다
불상타 저귀신아 가련하다 저귀신아
용천검 빗겨들고 익산압폐 전빅서서
아적전역 기폐문의 고각성 올어주니
공산편월 쏘각달과 빅양청사 썰기중의
절통타 우난소리 직가신면 온전할가
慶尙道 居昌郡 西一面 竹田里 鄭某
辛丑八月日滯囚中作

빅운처사경독가라

세상소연 아히덜아 이닉말삼 드러보소
이닉몸이 장부되야 천지간의 싱겨나섯시니
인의례지 천싱이요 부귀공명 쏘이로다
세상만사 정금하니 활일이 전히업다
낙괴청운 바라보니 환히풍파 쓰시업고
초강어부 도라보니 독조한강 괴롭도다
인간의무가 보난 글밧게 쏘잇난야
부자군신 삼강이요 형제부부 오룬이라
만고딴성 순임군은 일거무괴 걱정하고
노국성현 우리부자 삼절위편 하앗시니
성헌되고 문장말며 식자업고 영웅될야
인싱팔세 기입소학은 주회왕의 경계로다
어로불변 할량이면 막여무괴 금수로다
자포자기 하량이면 텡부자의 죄인이라

만고문장 심각하니 근고함도 쓰시업다
십년간서 리티릭은 마저성침 하얏시니
하물며 뇌둔인이라 글한다 과기하며 벼살할가
벼살도 조권이와 극변을 조심하라
티고적 시절에난 식목실 하단말가
실농씨가 짜부하여 괴인화식 한후의
함포고복 하얏시니

[현대역]

경자(庚子) 정월일(正月日)

경자(庚子)

⊗⊗⊗⊗⊗

⊗거창가(居昌歌)

<⊗>⊗⊗호남가(湖南歌)

경인 오월 일이라

거창가라

익운처사경독가 호남가

어와 친구 벗님네야 이 내 말씀 들어 보소

역여(逆旅)1 같은 천지간(天地間)에 부유(浮遊)2 같은 우리 인생

초로(草露)3같이 스러지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우주(宇宙)에 비겨4 서서 팔도강산(八道江山) 굽어보니

백두산(白頭山) 일(一) 지맥(地脈)5에 삼각산(三角山)6 생기었고

대관령(大關嶺) 흐른 물이 한강수(漢江水) 되었구나

천년산(千年山) 만년수(萬年水)의 거룩하다 우리 왕기(王基)7

인왕산(仁王山)8이 주산(主山)9이요 관악산(冠岳山)10이 안대(案對)11로다

길마재12가 백호(白虎)13 되고 왕십리(往十里)가 청룡(靑龍)14이라

무학(無學)15의 소점(所占)16으로 정도전(鄭道傳)17의 재혈(裁穴)18이라

대명홍무(大明洪武)19 이십오 년20 한양성(漢陽城)에 복지(卜地)21하니

이 년에 성읍(成邑)22하고 삼 년에 성도(成道)23로다

취치여일(就之如日) 하는 중에 망지여운(望之如雲) 하겠구나24

천상(天上)의 벽리화(花)를 완산(完山)의 씨를 받아

함흥에 옮겼다가 한양성에 복돋우니

천지만엽(千枝萬葉) 돋은 가지 금실옥실(錦實玉實) 맺었구나25

산호산호(山好山好) 재산호(再山好)26며 천세천세(千歲千歲) 천천세(千千歲)27라

오정역사(五丁力士)28 거느리고 허다(許多) 궁궐(宮闕) 창성(創成)29하니

인의예지(仁義禮智) 문을 달아30 팔조목(八條目)31 펼쳤어라

경복궁 지은 후에 인정전(仁政殿)32 지어내니

응천상지삼광(應天上之三光)33이요 비인간지오복(備人間之五福)34이라

백각사(百各司)35 벌여 두고 온갖 시정(市井) 포치(布置)36하니

하도(河圖)37 낙서(洛書)38 바둑판처럼 여기저기 흩어 있다

기자(箕子)39 성인(聖人) 내신 법도(法度) 황방촌(黃龐村)40의 본을 받아

삼강오륜 밝은 중에 군의신충(君義臣忠) 더욱 장하다

주천자(周天子) 오등작(五等爵)41을 삼천팔백 내외(內外) 관원(官員)
 뉘 아니 충신(忠臣)이며 열사(烈士)가 몇몇인가
 의정부(議政府) 삼당상(三堂上)42은 주공(周公) 소공(召公)43 보필(輔弼)이며
 이호예병형공조(吏戶禮兵刑工曹)는 팔원팔개(八元八愷)44 재국(才局)45이라
 복희씨(伏羲氏)46의 팔괘(八卦)47체로 팔도 감영(監營) 벌였구나
 기린각(麒麟閣)48 그린 조사(朝士)49 삼백육십 재목(材木)이며
 오영문(五營門)50 장한 군병(軍兵) 황석공(黃石公)51의 진법(陣法)이요
 훈련영(訓練營) 도감포수(都監砲手)52 오천칠백일흔두 명
 제갈무후(諸葛武侯)53 팔진도(八陣圖)54를 나날이 교련(教鍊)하며
 삼산(三山)의 봉화(烽火) 소식 사방(四方)이 안연(晏然)하다55
 선혜청(宣惠廳)56 만리창(萬里倉)57은 소상국(蕭相國)58의 국량(局量)이며
 호조(戶曹)의 집의(執義) 서리(書吏) 예수(隸首)59의 산법(算法)인가
 관상감(觀象監)60 천문(天文) 교수(教授) 용성(容成)61의 조력(造曆)이며
 정원(政院)62의 형방승지(刑房承旨)63 양태부(梁太傅)64의 문장(文章)이라
 형조(刑曹)의 일당상(一堂上)과 금부(禁府)65의 판의금(判義禁)66은
 고요(阜陶)67의 남은 경계(警戒) 직설(稷契)68의 법을 외워
 전옥의 주부덜은 장석지의 청필일네
 전옥(典獄)69의 주부(主簿)70들은 장석지(張釋之)71의 청필(聽畢)72이네
 십자가상(十字街上)73 돌아드니 종루가 거기로다
 서촉(西蜀)74 동산(銅山) 철을 바리바리 실어다가
 대풍기 불러내니 만 팔백 년 쇠북이라
 이십팔수(二十八宿)75 삼십삼천(三十三天)76 조석(朝夕)으로 개폐(開閉)하니
 하우씨(夏禹氏)77의 구정(九鼎)78인가 제도도 거룩하다
 염제(炎帝)의 일중위시(日中爲市)79 백물시정(百物市井) 벌였는데
 도불습유(道不拾遺)80 하는 풍속 갈천(葛天)81 세계 시절인가
 용산 삼개82 모든 배는 황제 헌원(軒轅)83 지은 바요
 구리개84 굽어보니 신농씨(神農氏)85의 유업(遺業)이며
 광통교(廣通橋)86의 노래 소리 강구(康衢)87의 동요(童謠)로세
 인정전(仁政殿)88 높은 집에 오현금(五絃琴)89 남풍시(南風詩)90를
 백공(百工)91이 상화(相和)92하니 건곤일월(乾坤日月) 밝았도다
 장악원(掌樂院)93 풍악 소리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94 오음육률(五音六律)95
 소소(簫韶)96 구성(九成)97 맑은 곡조 봉황이 춤을 춘다
 한강수 깊은 물에 용마(龍馬)98 하도(河圖)99 나왔는가
 박석치(薄石峙)100 넘어 드니 태학관(太學館)101이 거기로다
 성균관(成均館)102 장한 집과 명륜당(明倫堂)103 빛난 집의
 우리 부자(夫子)104 주벽(主壁)105 되어 안증사맹(顏曾思孟)106 배향(配享)하고
 그 남은 칠십이현(七十二賢)107 삼천문도(三千門徒)108 시위(侍衛)109 중에
 아동방(我東方) 제(諸) 대현(大賢)110도 차례로 승무(陞廡)111하니

장하고 거룩하다 우리 조선(朝鮮) 의관문물(衣冠文物)
 소중화(小中華)라 이른 말씀 이제야 아는 바라
 태조대왕 성덕(聖德)으로 사백여년 내려오며
 일출이작(日出而作) 일입이식(日入而息)112에 함포고복(含哺鼓腹)113 하는 백성
 남혼여가(男婚女嫁)114 즐거움은 태평연월(太平煙月)115 그뿐이라
 장하다 계명구폐(鷄鳴狗吠)116 사경(四境)117에 들렸도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중간 끼친 근심
 현원씨(軒轅氏)118와 영제(靈帝)로되 치우(蚩尤)119의 난을 당하고
 탕무(湯武)120의 성덕(聖德)으로도 정벌(征伐)이 있었으며
 그 남은 서절구투(鼠竊狗偷)121 어찌 다 기록하리
 원수로다 원수로다 갑오년 동지(冬至) 참 원수로다122
 여상고비(如喪考妣)123 하는 비회(悲懷) 심산궁곡(深山窮谷) 일반이라
 하늘 같은 대왕대비(大王大妃)124 일월 같은 자성전하(慈聖殿下)125
 태임(太妊)126의 덕이신가 선인황후(宣仁皇后)127 법을 받아
 수렴청정(垂簾聽政) 하신 후에 팔역(八域)128이 안연(晏然)하다129
 도광(道光)130 십칠년 신축년에 우리 성상 즉위하시어131
 춘추(春秋)132 방성(方盛)133 십오 세에134 한소제(漢昭帝)135의 총명이며
 주성왕(周成王)136 어린 임금 팔백 년 기업(基業)이니
 우리 전하 어리시되 팔천 세나 바라나니
 작년도 풍년이요 금년도 풍년이라
 천무열풍(天無烈風) 음우(淫雨)137하고 해불양파(海不揚波)138 하겠구나
 가급인족(家給人足)139 하려니와 국태민안(國泰民安)140 줄을시고
 입아증민(粒我蒸民)141 백성들아 어서가고 자주 가자
 돈화문(敦化門)142에 걸린 윤음(綸音)143 한무제(漢武帝)144의 조서(詔書)인가
 초목(草木) 군생(群生)145 즐거움도 이도 또한 성화(聖化)146로세
 장안(長安) 청루(靑樓) 소년들아 협탄비응(挾彈飛鷹)147 하려니와
 태평곡(太平曲) 격양가(擊壤歌)148를 이 내 노래 들어보소
 어제 청춘 오늘 백발 너인들 아니 모르겠느냐
 창해일숙(滄海一粟)149 우리 인생 후회한들 어이 하리
 장대(粧臺)에 고운 계집 네 꽃 좋다고 자랑 마라
 서산의 지는 해를 뉘라서 금하겠느냐
 동해에 흐른 물결 다시 오기 어려워라
 뒷동산에 지는 꽃은 명년(明年)150 삼춘(三春)151 다시 피되
 우리 인생 늙은 후에 다시 소년 어렵도다
 낙양성(洛陽城) 십 리(里) 외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 몇몇이며 절대佳人(絕代佳人) 누구누구
 우락중분(憂樂中分) 미백년(未百年)의 소년행락(少年行樂) 편시춘(片時春)152을
 개벽(開闢) 후 내린 사적(事蹟) 역력(歷歷)히 들어보소

요순우탕(堯舜禹湯)153 문무주공(文武周公)154 공맹안증(孔孟顏曾)155 정주부자(程朱夫子)156
 도덕이 관천(貫穿)157하여 만고성인(萬古聖人) 되었어라
 요마(妘麻)158한 후생(後生)들아 이를 말씀 아니로세
 그 남은 고래(古來) 영웅 날날이 헤아리니
 통일천하 진시황(秦始皇)159은 아방궁(阿房宮)160 사랑 삼고
 만리장성 담장 안에 억만 세나 비겼어라
 육국(六國)161 제후(諸侯) 조공(朝貢)하고 삼천 궁녀 비겼어라
 삼신산(三神山)162 멀고 먼데 원하는 바 불사약(不死藥)을
 동남동녀(童男童女) 오백 인이 소식조차 돈절(頓絕)163하며
 사구평대(沙邱平臺)164 저운 날에 여산청총(驪山青塚)165 속절없다
 우산(牛山)의 지는 해는 제경공(齊景公)의 눈물이라166
 분수(汾水)167의 추풍곡(秋風曲)168은 한무제(漢武帝)169의 슬픔이라
 불쌍하다 용방(龍逢)170 비간(比干)171 만고충신(萬古忠臣)이지만은
 충신 직간(直諫) 쓸데없어 주검도 참혹(慘酷)하다
 장(壯)하다 백이(伯夷)172 숙제(叔齊)173 천추(千秋)174 고절(孤節)175 일렀으되
 수양산(首陽山)176 깊은 골에 채미곡(採薇曲)이 처량하다
 강태공(姜太公)177 황석공(黃石公)178과 사마(司馬)179 양저(讓直)108 손빈(孫臏)181 오기(吳起)182
 전필승(戰必勝) 공필취(功必取)의 용병(用兵)이 여신(如神)하되
 못 쳤나니 염라국(閻羅國)을 한번 죽음 못 면하고
 면산(綿山)의 봄이 드니 개자추(介子推)의 무덤이며 183
 삼강(三江)의 성낸 조수(潮水) 오자서(伍子胥)184의 정령(精靈)이며
 역라수(汨羅水)185 깊은 물에 굴삼려(屈三閭)186의 충혼(忠魂)이라
 말 잘하는 소진(蘇秦)187 장의(張儀)188 천하를 횡행(橫行)하며
 육국(六國)189 제후(諸侯) 다 친하되 염라왕을 못 달래어
 세우야(細雨夜) 두견성(杜鵑聲)의 영혼(靈魂)이 울어 있고
 잉상군의 계명구폐 신릉군의 절부고명
 맹상군(孟嘗君)190의 계명구폐(鷄鳴狗吠)191 신릉군192의 절부고명(竊符矯命)
 전국시(戰國時) 호걸이되 삼천 식객 흠어 두고
 황산(荒山) 세우(細雨) 깊은 밤에 일부토(一抔土)193 가련하다
 역발산(力拔山)194 초패왕(楚霸王)195은 천하장사이지만
 시불리혜(時不利兮) 추불서(騅不逝)196 팔천병(八千兵) 흠어두고
 우미인(虞美人)197 손을 잡고 눈물로 하직하며
 오강(烏江)198 풍랑(風浪) 수운 중에 칠십여전(七十餘戰) 가소롭다
 운주(運籌)199 유악(帷幄)200 장자방(張子房)201과 동남풍(東南風) 제갈공명(諸葛孔明)202
 천문지리(天文地理) 중찰인(中察人)203의 만고조화(萬古造化) 가졌으되
 절통하다 한 번 죽음 조화로도 못 면하고
 사마천(司馬遷)204 한퇴지(韓退之)205와 이태백(李太白)206 두자미(杜子美)207며
 제일문장(第一文章)이지만은 장생불사(長生不死) 못하였고

독행천리(獨行千里) 관운장(關雲長)208은 명진천하(名振天下)209 하였어라
 거룩하다 명촉달조(明燭達朝)210 천추능름(千秋凜凜) 뿐이로다
 장판영웅(長坂英雄) 장익덕(張翼德)211은 편비(偏裨)212에게 죽었던 말인가
 꾀 많은 위왕(魏王) 조조(曹操)213 당돌하다 오왕(吳王) 손권(孫權)214
 삼분천하(三分天下) 분분(紛紛) 중에 이도 또한 영웅이되
 동작대(銅雀臺)215 석두성(石頭城)216에 영혼이 자취 없고
 부춘산(富春山)217 돌아드니 엄자릉(嚴子陵)218 간 데 없고
 진처사(晉處士) 도연명(陶淵明)219은 집터만 비어 있고
 왕사(王榭)의 장한 풍류 연자(燕子)220만 날아든다
 곽분양(郭汾陽)221 백자천손(百子千孫)222 일시 호강뿐이라
 도주223 의돈(猗頓)224 석송(石崇)225이는 부자 중 으뜸이라
 일생일사(一生一死) 한정(限定) 있어 값으로도 못 사내고
 월서시(越西施)226 우미인(虞美人)227과 왕소군(王昭君)228 양귀비(楊貴妃)229는
 선후천년(先後千年) 내려오며 경국지색(傾國之色)230 가졌으되
 월태화용(月態花容)231 어린 양자(樣姿)232 진애(塵埃)233 중에 묻혀 있어
 추우엽(秋雨葉) 낙오동(落梧桐) 영혼이 슬피 울고
 팔백 년 팽조수(彭祖壽)234와 삼천갑자(三千甲子)235 동방삭(東方朔)236도
 피일시(彼一時) 차일시(此一時)라 죽어지면 그만이요
 안기생(安期生)237 적송자(赤松子)238는 동해상 신선이라
 귀로만 들었으며 눈으로는 못 보아라
 한실(漢室) 택중 사호선생(四皓先生)239 상산(商山)240이 멀었어라
 천지도 개벽(開闢)하고 일월도 밝았거든
 하물며 우리 인생 천만년 장생(長生)하라
 춘화홍(春花紅) 추엽낙(秋葉落)은 세월이 덧없나니
 이러한 태평성세 아니 놀고 무엇하리
 조선 삼백이십팔 주(州) 간 곳마다 태평하다
 어찌하여 우리 거창(居昌) 시운(時運)이 불행하여
 일경(一境)241이 도탄(塗炭)되고 만민(萬民)이 구갈(口渴)242하니
 요순(堯舜)243의 성덕(聖德)으로도 사흉(四凶)244이 있었으며
 제위왕(齊威王)245의 명감(明鑑)246으로도 아대부(阿大夫)247 있다는 말인가248
 일월이 밝건마는 복분(覆盆)에 난조(難照)하고249
 춘양(春陽)250이 포덕(布德)인들 음애(陰崖)251에 미치겠느냐
 이재가(李在稼)252 어인 자며 저자가 어인 자인고 $\infty \infty \infty \infty$ 本官姓名
 거창이 폐창(廢昌) 되고 재가가 망가하리라
 제리(諸吏)253는 간리(奸吏)254 되고 태수가 원수로다
 책방(冊房)255이 취방(取房)256하고 진사(進士)가 다사(多事)하다
 어와 세상 상전님네 우리 거창 폐단 보소
 재가가 내려온 후에 온갖 폐단 일어나되

구중(九重)257 천리 멀고 먼데 이런 민정(民情)258 모르시고
 징청각(澄清閣)259 높은 집의 관풍찰속(觀風察俗)260 우리 순상(巡相)261
 읍보(邑報)262만 준수(遵信)263하니 문불서양(問佛西洋)264 아니겠는가
 이노포(吏奴逋)265 만여 석을 백성이 무슨 죄로
 수천 석 포흠(逋欠)266이되 매 한 개 치지 않고
 두승곡(斗升穀)267 물리지 않고 백성에게만 물려내니
 대전통편268 조목 중에 이런 법도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천사백 방채전(放債錢)269이 이도 또한 이포(吏逋)270거든
 결복(結卜)271에 부쳐다가 민간에 징출(徵出)272하니
 왕세(王稅)273가 소중하거든 요망(妖妄)274한 아전 포흠
 왕세에 부쳤다가 임의로 작간(作奸)275할까
 호수(戶首)276도 백성이라 또 다시 원통(冤痛) 시켜
 아전 포흠 수쇄(收刷)277하니 비단 금은 폐단이라
 명년(明年) 가고 우명년(又明年)의 몇 천 년 폐단인가
 본읍 지경(地境) 둘러보니 삼가(三嘉)278 합천(陝川)279 안의(安義)280 지례(知禮)281
 사읍(四邑) 중에 처하여서 매년 결복(結卜) 상정할 때
 타읍(他邑)은 열한두 냥 민간에 징출(徵出)하고
 본읍은 열에닐곱 냥 연년이 가증(加增)하니
 다 왕민(王民)은 일반인데 왕세(王稅)를 같이하며
 어찌하여 우리 거창 두세 냥씩 가증(加增)하고
 근래(近來)의 낙강(落江)282 성천(成川)283이 구산(丘山)284 같이 쌓였으되
 절통하다 이 내 백성 재(災)285 한 짐286도 못 하더라
 재결(災結)287이 회감(會減)288함은 묘당(廟堂)289 처분 있건마는
 묘당 처분 저 재결을 중간 투식(偷食)290 누가 하느냐
 가포(價布) 중 악생포(樂生布)291는 제일(第一)로 된 가포(價布)라
 악생포 한 당번(當番)을 일향(一鄉)이 편침(編侵)하니292
 적으면 칠팔백 냥이요 많으면 일이만 냥이라
 모야무지(暮夜無知)293 남모르게 책방(冊房)으로 들어가니
 이 가포 한 당번에 몇몇 집이 탕산(蕩產)294하랴
 그 남은 허다 가포 수륙(水陸) 군병 던져두고
 선무포(選武布)295 제번포(除番布)296며 인리포(人吏布)297 노령포(奴令布)298라
 각색 다른 저 가포를 백 가지로 침책(侵責)299하니
 김담사(金淡沙)리 박담사(朴淡沙)300리 큰 아기 작은 아기301
 어서 가고 바빠 가자 향 작청(作廳)302에 잡혔단다
 전촌(前村)에 짓는 개는 관차(官差)303 보고 꼬리 치고
 뒷집에 우는 아가 이교(吏校)304 왔다 울지 마라
 일신(一身) 양역(良役)305 원통 중에 황구첨정(黃口簽丁)306 가련하다
 생민가포(生民價布)307 던져두고 백골징포(白骨徵布)308 어인 일인가

황산(荒山) 고총(古塚)309 노방(路傍)310 강시(僵屍)311 네 신세 불쌍하도다
 너 죽은 지 몇 해건데 가포 돈이 어찌 된 일인가
 관문(官門) 앞에 저 송장은 죽기도 서럽거든
 죽은 송장 다시 파서 백골 폭양(曝陽)312 처량하다
 학정 없이 치민(治民)313하면 회곡(會哭) 향회(鄉會) 거조(舉措)하라
 사오 년 내려오며 탐학(貪虐)이 자심하다
 개과천선(改過遷善) 아니하고 무죄(無罪) 백성 죽게 하네
 학정(虐政)도 하려니와 남살(濫殺)314 인명(人命) 어인 일인가
 한유택(韓有宅) 정치광(鄭致光)과 전부인 강일상아
 너희 죄 무슨 죄로 장하(杖下)315에 죽는단 말인가
 보름 만에 죽은 사람 한 달 만에 죽는 백성
 오륙인이 되었으니 그 적원(積怨)316이 얼마인가
 흉악하고 분한 말을 또 다시 들어 보소
 정유년(丁酉年) 시월(十月) 달에 적화면(赤花面)317에 불이 났네
 우거(寓居) 양반 김일광(金日光)에게 선무포(選武布)318가 가당하단 말인가
 김일광 나간 후에 해면(該面) 면임(面任)319 수쇄(收刷)320할 때
 양반 내정(內庭) 돌입하여 청춘 부녀 끌어내어
 이러한 예의방(禮義方)에 반상(班常) 분별 중(重)한 중에
 남녀유별 지엄하거든 광언(狂言)321 패담(悖談)322 하감(何敢)으로
 두발부예(頭髮扶曳)323 했다는 말인가 장하다 저 부인이여
 이런 욕 당한 후에 아니 죽고 쓸데없어
 백일(白日)이 무광(無光)하고 청산(靑山)이 옥열(欲裂)이라
 삼생연분(三生緣分)324 이생 언약(言約) 뜬 구름이 되었어라
 만리전정(萬里前程)325 이 내 목숨 일검하(一劍下)에 죽는단 말인가
 만경창파(萬頃蒼波) 물을 길러 이 내 분함 씻고자
 남산 녹죽(綠竹) 수(數)를 둔들 네 죄목을 다 알겠느냐
 열녀 정문(旌門)326 고사하고 대살(代殺)327도 못 시키니
 천음우습(千陰雨濕)328 슬픈 밤에 영혼인들 아니 올라
 금년 사월 보름 우박 그 설원(雪冤)329이 아니겠는가
 청상(靑孀)330 백수(白手)331 우는 과부 그대 신세 처량하네
 전생연분 이생 언약 날 버리고 어디 가나
 남산의 지으신 발을 어느 장부 갈아주며
 동헌(東軒)에 익은 술을 누구에게 권하겠느냐
 동지선달 긴긴 밤에 독수공방 더욱 서럽다
 옆옆이332 우는 자식 배고파라 서러운 사정
 가장 생각 서러운 중에 죽은 가장 가포 났네
 흉악하고 죽일 놈아 너도 또한 인륜(人倫)이어든
 가포(價布)333도 던져두고 차사(差使)334 전례(前例) 먼저 찾아

필필(仄仄) 고생 짜낸 배를 탈취하여 갔단 말인가
 절통하다 우는 소리 동헌 대공(大空)335 함께 운다
 불쌍하다 저 귀신아 가련하다 저 귀신아
 용천검336 빗겨 들고 일산(日傘)337 앞에 전배(前陪)338 서서
 아침저녁 개폐문(開閉門)에 고각성(鼓角聲)339 울어 주니
 공산(空山) 편월(片月)340 조각달과 백양(白楊)341 청산 떨어 중의
 절통하다 우는 소리 재가(在稼) 신세 온전할까
 경상도(慶尙道) 거창군(居昌郡) 서일면(西一面) 죽전리(竹田里) 정모(鄭某)
 신축(辛丑) 팔월일(八月日) 체수중(滯囚中) 작(作)

익운처사경독가라

세상(世上) 소년(少年) 아이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내 몸이 장부(丈夫)되어 천지(天地)간에 생겨났으니
 인의예지(仁義禮智) 천생(天生)이요 부귀공명(富貴功名) 뿐이로다
 세상만사(世上萬事) 정금(整襟)1하니 할 일이 전혀없다
 낙교(洛橋)2 청운(靑雲)3 바라보니 환해풍파(宦海風波)4 끝이 없고
 초강어부(楚江漁夫)5 돌아보니 독조한강(獨釣寒江)6 괴롭도다
 인간의 의무(義務)가 보면 글밖에 또 있느냐
 부자(父子)군신(君臣) 삼강(三綱)7이요 형제(兄弟)부부(夫婦) 오륜(五倫)8이라만고대성(萬古大聖) 순
 임금9은 일거무교(逸居無教)10를 걱정하고노국(魯國) 성현(聖賢)11 우리 부자(父子) 삼절위편(三絶韋
 編)12 하였으니
 성현(聖賢)되고 문장(文章)13말며 식자(識者)14없고 영웅이 되겠느냐
 인생팔세(人生八世) 개입소학(皆入小學)15은 주희(朱熹)16왕의 경계(警戒)로다
 어로불변(魚魯不辨)17 할양이면 막여(莫如)18 무괴(無怪)19 금수(禽獸)로다
 자포자기(自暴自棄)20 할양이면 맹부자(孟夫子)21의 죄인(罪人)이라
 만고문장(萬古文章)22 생각하니 근고(勤苦)23함도 끝이 없다
 십년(十年)간서(看書)24 이태백(李太白)25은 마저성침(摩杵成針)26 하였으니
 하물며 내 둔인(遜人)27이라 글한다 과거하며 벼슬할까
 벼슬도 좋거니와 극변(劇變)28을 조심하라
 태고(太古)적 시절에는 식목실(食木實)29 하단말가
 신농씨(神農氏)30가 따부하여 교인화식(教人火食)31 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32 하였으니

[각주]

- 1) 역여(逆旅) : 나그네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여관(旅館)을 이르는 말.
- 2) 부유(浮遊/浮游) : ①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님.② 행선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님.
- 3) 초로(草露) : 풀잎에 맺힌 이슬.
- 4) 비기다 : 비스듬하게 기대다.
- 5) 지맥(地脈) : 땅속 지층이 이어진 맥락.
- 6) 삼각산(三角山) : 북한산'의 다른 이름.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있어 이렇게 부름.
- 7) 왕기(王基) : 왕업의 기초.
- 8) 인왕산(仁王山/仁旺山) : 서울 서쪽, 종로구와 서대문구 사이에 있는 산.전체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반이 노출된 것이 특징임.곳곳에 약수가 있고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시민이 소풍 장소로 즐겨 찾는 곳임.산의 서쪽 기슭에 있는 장삼을 입은 듯한 선바위는 예로부터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잘 이루어졌다고 함.높이는 338미터.
- 9) 주산(主山) : ① 도읍, 집터, 무덤 따위의 뒤쪽에 있는 산.② 풍수지리에서, 뒷자리나 집터 따위의 운수 기운이 매였다는 산.
- 10) 관악산(冠岳山)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사이에 있는 산.북한산(北漢山)·남한산(南漢山)과 함께 서울 분지를 이중으로 둘러싼 자연의 방벽으로, 옛 서울의 요새지를 이루었음.관악사와 연주대(戀珠臺)가 있음.높이는 629미터.
- 11) 안대(案對) : 안산(案山).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뒷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
- 12) 길마재 : 무악(毋岳)재'의 옛 이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과 홍제동 사이에 있는 고개.조선 태조 3년(1394)에 태조가 도읍터를 물색하기 위하여 몸소 무학 대사를 데리고 와서 조사하였다 하여 '무학재'라고도 함.예로부터 한양으로 들어오는 교통의 요충지였음.
- 13) 백호(白虎) : 풍수지리에서, 주산(主山)에서 오른쪽으로 뻗어 나간 산줄기.여럿일 때는 내백호와 외백호로 나눔.
- 14) 청룡(靑龍) : 풍수지리에서, 주산(主山)의 왼쪽으로 뻗어 나간 산줄기.
- 15) 무학(無學) : 고려 말기·조선 초기의 승려(1327~1405).속성은 박(朴).이름은 자초(自超).이성계의 스승으로, 법천사·영암사에 수년 간 머물다가 양주(楊州) 회암사(檜巖寺)에서 계속 지냈음.새 수도의 지상(地相)을 보러 계룡산, 한양 등지를 돌아다녔으며, 저서에 '인공음(印空吟)'이 있음.
- 16) 소점(所占) : 무학이 (한양을 도읍지로) 점찍은 바로.
- 17) 정도전(鄭道傳) : 고려 말기·조선 전기의 문인·학자(1342~1398).자는 종지(宗之).호는 삼봉(三峯).이색의 문인으로, 조선 개국 일등 공신이 되었으며 성리학을 지도 이념으로 내세워 불교를 배척하였음.전략, 외교, 법제, 행정에 밝았으며 시와 문장에 뛰어나 '고려사' 37권을 개수하고, <납씨가>, <신도가> 따위의 악장을 지었고, 저서에 '조선경국전', '경제육전'과 문집 '삼봉집' 따위가 있음.
- 18) 재혈(裁穴) : 뒷자리의 정기가 모여 있는 혈(穴)의 위치를 재어서 정한다는 말로 정도전이 새 도읍을 설계하고 완성시킨 일을 말함.
- 19) 홍무(洪武) : 중국 명나라 태조 때의 연호(1368~1398).이때부터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가 확립되었음.
- 20) 이십오 년 : 홍무25년은 조선 태조가조선을 건국한 1392년임.

- 21) 복지(卜地) : 복거(卜居).살 만한 곳을 가려서 정함.
- 22) 성읍(成邑) : 고을을 이룸.수도를 이룸.
- 23) 성도(成道) : 길을 만듦.
- 24) 취지여일(就之如日) 하는 중에 망지여운(望之如雲) 하겠구나 : 사기' 권1 「오제본기(五帝本紀)」에 “제요란 분은 이름이 방훈이니, 그 인덕(仁德)은 하늘과 같았고, 그 지혜는 신과 같았으며, 가까이 나아가 보면 따스한 햇볕과 같았고, 멀리서 바라보면 촉촉이 비를 내려 주는 구름 같았다.(帝堯者放勳 其仁如天 其知如神 就之如日 望之如雲)”라는 말이 나온다고 함.
- 25) 천지만엽(千枝萬葉) 돋은 가지 금실옥실(錦實玉實) 맺었구나 : 태조가 전주 이씨의 후예로서 고조인 목조(穆祖)가 전주에서 살다가 강원도로 옮기고, 다시 함흥으로 옮겨 살다가 한양에서 나라를 개창하여 번성하게 된 일을 지적한 내용.
- 26) 산호(山呼) : 산호만세(山呼萬歲).나라의 중요 의식에서 신하들이 임금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두 손을 치켜들고 만세를 부르던 일.중국 한나라 무제가 쑹산(嵩山) 산에서 제사 지낼 때 신민(臣民)들이 만세를 삼창한 데서 유래함.
- 27) 천세(千歲) : 천추만세(千秋萬歲).오래 살기를 축수하는 말.
- 28) 오정역사(五丁力士) : 전국시대 촉(蜀)나라에 있었다는 전설상의 다섯 명의 역사(力士)로, 험준하기로 유명한 촉도(蜀道)를 닦았다고 함.진 혜왕(秦惠王)이 촉을 정벌하고 싶었으나 길이 없기에, 꾀를 내어 돌로 다섯 마리 소[石牛]를 깎아 만들고 소의 항문 밑에 금을 놓아두고는 '돌소가 금똥을 누다.'고 소문을 퍼뜨렸다.촉 사람들이 과연 속아서 다섯 사람의 역사, 즉 오정역사(五丁力士)를 시켜서 돌소를 끌고 오게 하니, 이에 촉 땅으로 통하는 길이 생겼고 진왕(秦王)이 장의(張)
- 29) 창성(創成) : 처음으로 이루어짐.또는 처음으로 이룸
- 30) 인의예지(仁義禮智) 문을 달아 : 흥인지문(興仁之門), 돈의문(敦義門), 숭례문(崇禮門), 숙정문(肅靖門) 건축을 의미함.
- 31) 팔조목(八條目) : 대학(大學)'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여덟 조목.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임.
- 32) 인정전(仁政殿) : 창덕궁의 정전(正殿).조선 태종 5년(1405)에 창덕궁과 함께 창건되었으며, 지금의 건물은 순조 3년(1803)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이듬해 중건한 것으로, 구조와 양식을 비롯하여 단청 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선 후기 건축을 대표하는 것임.국보 정식 명칭은 '창덕궁 인정전'이며, 국보 제225호.
- 33) 응천상지삼광(應天上之三光) : 상량문에 주로 쓰이는 글.삼광(三光)은 해, 달, 별을 말함.즉 '천상의 세 빛에 조응함이요'의 의미.
- 34) 비인간지오복(備人間之五福) : 상량문에 주로 쓰이는 글.오복(五福)은 보통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이르는데,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 귀(貴)함과 자손이 중다(衆多)함을 꼽기도 함.즉 '인간의 오복을 갖춤이라'의 의미.
- 35) 백각사(百各司) : 서울 안의 모든 관아를 통틀어 이르던 말.
- 36) 포치(布置/鋪置) : 넓게 늘어놓음.
- 37) 하도(河圖) : 북희씨 때 황하에서 길이 8척이 넘는 용마가 등에 지고 나왔다는 그림으로 주역 팔괘의 근원이 되었음.
- 38) 낙서(洛書) : 하우씨의 9년 치수 때 낙수에서 나온 신구(神龜)의 등에 있었다는 글로서 '서경' 흥범

구주의 기원이 되었다고 함.

39) 기자(箕子) : 고조선 때에 있었다고 하는 전설상의 기자 조선의 시조(始祖).은(殷)나라 주왕(紂王)의 친척으로 나라가 망하자 조선에 들어와 예의, 전잠(田蠶), 방적(紡績), 팔조(八條)의 교(敎) 등을 가르쳤다고 함.

40) 황방촌(黃龐村) : 여말선초의 문신인 황희(黃禧;1363~1452).초명은 수로(壽老).자는 구부(懼夫).호는 방촌(龐村).세종 때에 18년간 영의정을 지내면서 농사법을 개량하고 예법(禮法)을 개정하는 등 문물제도의 정비에 힘썼으며, 어질고 깨끗한 관리의 표본이 되었다.저서에 '방촌집'이 있음.

41) 오등작(五等爵) : 다섯 등급의 벼슬.즉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

42) 삼당상(三堂上) : 삼당상은 ① 육조의 판서, 참판, 참의를 통틀어 이르던 말.② 나라에 길례(吉禮)나 흉례(凶禮)가 있을 때에 두었던 도감(都監)의 세 제조(提調).도제조, 제조, 부제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의정부라는 어휘와 연결하여 '삼당상'이 쓰였고 또 다음 행에 '이호예병형공'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

43) 주공(周公) : 주나라의 주공 단(周公旦)과 소공 석(召公奭).모두 성왕(成王)을 도운 사람들임.

44) 팔원팔개(八元八愷) : 여덟 명의 온화한 사람과 여덟 명의 선량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옛적 고양씨(高陽氏)의 팔재자(八才子)를 일컫는 말.

45) 재국(才局) : 재주와 국량.

46) 복희씨(伏羲氏/伏犧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삼황오제의 우두머리이며, 팔괘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47) 팔괘(八卦) : 중국 상고 시대에 복희씨가 지었다는 여덟 가지의 괘.<주역>에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치어 여덟 가지의 상으로 나타낸 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을 이룸.

48) 기린각(麒麟閣) : 중국 한나라의 무제가 장안의 궁중에 세운 전각.선제 때 광광 외 공신 11명의 초상을 그려 각상(閣上)에 걸었다고 함.

49) 조사(朝士) : 조신(朝臣).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신하.

50) 오영문(五營門) : 오군영(五軍營).조선 시대에, 오위(五衛)를 고쳐 둔 다섯 군영.훈련도감,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금위영을 이룸.

51) 황석공(黃石公) : 진(秦)나라 말기에 이상(埒上)에서 장량(張良)에게 병서를 주었다고 하는 노인.

52) 도감포수(都監砲手) : 조선 시대에 설치한 훈련도감의 포수.

53) 제갈무후(諸葛武侯) : 제갈량(諸葛亮).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정치가(181~234).자(字)는 공명(孔明).시호는 충무(忠武).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유비를 도와 오(吳)나라와 연합하여 조조(曹操)의 위(魏)나라 군사를 대파하고 파촉(巴蜀)을 얻어 촉한을 세웠음.유비가 죽은 후에 무향후(武鄉侯)로서 남방의 만족(蠻族)을 정벌하고, 위나라 사마의와 대전 중에 병사하였음.

54) 팔진도(八陣圖) : 제갈량이 만든 진법(陣法)의 그림.중군(中軍)을 가운데에 두고 전후좌우에 각각 여덟 가지 모양으로 진을 치.

55) 안연(晏然)하다 : 민심이 평화롭고 걱정 없이 편안하다.

56) 선혜청(宣惠廳) : 조선 시대에, 대동미와 대동목, 대동포 따위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선조 41년(1608)에 두었다가, 고종 31년(1894)에 없앴다.

57) 만리창(萬里倉) : 대동미(大同米) · 포(布) · 전(錢)을 출납하던 선혜청 창고 중 하나로 만리현(萬里

峴)에 있던 창고.

58) 소상국(蕭相國) : 한 대(漢代) 삼걸(三傑)의 하나인 소하(蕭何).고조(高祖)를 도와 천하를 다스리고 찬후(鄼侯)가 됨.한나라의 율령을 주로 그가 제정했음.

59) 예수(隸首) : 황제(黃帝) 때의 사람인데, 처음으로 산수를 발명하고 도량형을 만들었다는 전설적 인물.

60) 관상감(觀象監) : 조선 시대에, 예조에 속하여 천문(天文), 지리(地理), 역수(曆數), 기후 관측, 각루(刻漏)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세종 7년(1425)에 서운관을 고친 것으로 고종 32년(1895)에 관상소로 고쳤다.

61) 용성(容成) : 황제(黃帝)의 사관.처음으로 율력을 만들었고 장생술을 터득했으므로 도가의 채음보양술(採陰補陽術)은 용성공에서 시작되었다고 함.

62) 승정원(承政院) : 조선 시대에,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정종 2년(1400)에 중추원을 고쳐 도승지 이하의 벼슬을 두었는데, 고종 31년(1894)에 승선원(承宣院)으로 고쳤다.

63) 형방승지(刑房承旨) :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형방을 맡아보던 승지.우부승지가 맡았다.

64) 양태부(梁太傅) : 가의(賈誼).중국 전한(前漢) 문제 때의 학자·정치가(B.C.200~B.C.168).문제(文帝)를 섬기며 유학과 오행설에 기초를 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주장하였다.저서에 '좌씨전훈고(左氏傳訓詁)', '신서', '북조부(鵬鳥賦)' 따위가 있다.

65) 의금부(義禁府) : 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죄인을 신문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아.태종 14년(1414)에 의용순금사를 고친 것으로 왕족의 범죄, 반역죄·모역죄 따위의 대죄(大罪), 부조(父祖)에 대한 죄, 강상죄(綱常罪), 사헌부가 논핵(論劾)한 사건, 이(理)·원리(原理)의 조관(朝官)의 죄 따위를 다루었는데, 고종 31년(1894)에 의금사로 고쳤다.

66)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 조선 시대에 둔, 의금부의 으뜸 벼슬.품계는 종일품이다.

67) 고요(皋陶) :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인물.순(舜)임금의 신하로, 구관(九官)의 한 사람이다.법을 세우고 형벌을 제정하였으며, 옥(獄)을 만들었다고 한다.

68) 직설(稷契) : 직(稷)과 설(契).모두 순제(舜帝)를 섬긴 명신(名臣).직의 이름은 기(棄)로 농업을 관장했으며 주(周)의 조선(祖先)이고, 설은 교육을 관장했으며 은(殷)의 조선(祖先)임.

69) 전옥서(典獄署) : 조선 시대에, 감옥의 죄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태조 1년(1392)에 두었다가 고종 31년(1894)에 없애고 감옥서로 고쳤다.

70) 주부(主簿) : 전옥서에 속해 있던 관원.전옥서의 관원은 부제조 1인인데, 승지가 겸임하고 그 아래에 주부, 봉사, 참봉 등과 서리 4인, 나장 30인을 두고 있었다.

71) 장석지(張釋之) : 도양(堵陽) 사람.자는 계(季).벼슬은 문제(文帝) 때 복야(僕射)를 지냈고, 뒤에 정위(廷尉)가 되었음.법 집행이 엄하고 공평하여 당시 사람들은 장석지가 정위 된 후에 천하에 억울한 백성이 없어졌다고 말할 정도였음.

72) 청필(聽畢) : 듣기를 마침.

73) 십자가상(十字街上) : 현재의 종로 네거리.

74) 서촉(西蜀) : 고대 중국(中國)의 진(秦)나라 서쪽에 속해있던 지명.

75) 이십팔수(二十八宿) : 천구(天球)를 황도(黃道)에 따라 스물여덟으로 등분한 구획.또는 그 구획의 별자리.동쪽에는 각(角)·항(亢)·저(氐)·방(房)·심(心)·미(尾)·기(箕), 북쪽에는 두(斗)·우(牛)·여(女)·허(虛)·위(危)·실(室)·벽(壁), 서쪽에는 규(奎)·누(婁)·위(胃)·묘(昴)·필(畢)·자(觜)·

삼(參), 남쪽에는 정(井)·귀(鬼)·유(柳)·성(星)·장(張)·익(翼)·진(軫)이 있다.

76) 삼십삼천(三十三天) : ① 육옥천, 십팔천, 무색계 사천(四天)과 일월성수천(日月星宿天), 상교천(常橋天), 지만천(持鬘天), 견수천(堅首天), 제석천(帝釋天)을 통틀어 이르는 말.② '도리천'을 달리 이르는 말.가운데 제석천과 사방에 여덟 하늘씩이 있다 하여 이렇게 이른다.

77) 하우씨(夏禹氏) : 중국 하나라의 우임금을 이르는 말.곤(鯀)의 아들로써 치수에 공적이 있어서 순(舜)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하(夏)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78) 구정(九鼎) : 중국 하(夏)나라의 우왕(禹王) 때에, 전국(周)의 아홉 주(州)에서 쇠붙이를 거두어서 만들었다는 아홉 개의 솥.주(周)나라 때까지 대대로 천자에게 전해진 보물이었다고 한다.

79) 일중위시(日中爲市) : 고대 제왕 신농씨.중국의 옛 전설 속의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농업·의료·악사(樂師)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이며, 또 역(易)의 신, 상업의 신이라고도 한다.하루 중 때를 정해 시장을 열었다고 한다.

80) 도불습유(道不拾遺) :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형벌이 준엄하여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아니하거나 민심이 순후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한비자'의 <외저설좌상편(外儲說左上篇)>에 나오는 말이다.

81) 갈천씨(葛天氏) : 중국 상고의 군왕.무위(無爲)로 천하를 잘 다스렸다 한다.

82) 삼개 : 삼개나루로 지금의 서울 마포(麻浦)

83) 현원씨(軒轅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처음으로 곡물 재배를 가르치고 문자·음악·도량형 따위를 정하였다고 한다.

84) 구리개 : 동현(銅峴).현 을지로 입구 일대.당시에는 길이 질어서 구릿빛으로 거무튀튀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함.

85) 신농씨(神農氏) : 중국의 옛 전설 속의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농업·의료·악사(樂師)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이며, 또 역(易)의 신, 상업의 신이라고도 한다.

86) 광통교(廣通橋) : 종로에서 을지로 사이의 청계천에 놓여있던 다리.광교(廣橋)라고도 함.

87) 강구(康衢) : 사방으로 두루 통하는 변화한 큰 길거리.

88) 인정전(仁政殿) : 창덕궁의 정전(正殿).조선 태종 5년(1405)에 창덕궁과 함께 창건되었으며, 지금의 건물은 순조 3년(1803)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이듬해 중건한 것으로, 구조와 양식을 비롯하여 단청 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선 후기 건축을 대표하는 것임.국보 정식 명칭은 '창덕궁 인정전'이며, 국보 제225호.

89) 오현금(五絃琴) : 다섯 줄로 된 고대 현악기의 하나.중국의 순임금이 만들었다고 하며, 칠현금의 전신이다.

90) 남풍시(南風詩) : 순임금이 남熏전(南薰殿)에서 오현금을 타며 불렀다는 노래.

91) 백공(百工) : ① 온갖 종류의 장인(匠人).② 백관(百官).

92) 상화(相和) : 서로 잘 어울림.

93) 장악원(掌樂院) : 장악 기관의 하나.조선 시대에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연산군 때 전악서를 고친 것이다.

94)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 : 동양 음악에서 음의 이름.

95) 오음육률(五音六律) : 예전에, 중국 음악의 다섯 가지 소리와 여섯 가지 율(律).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의 오음과 황종(黃鍾), 태주(太簇), 고선(姑洗), 유빈(蕤賓), 이칙(夷則), 무역(無射)

의 육률을 이른다.

96) 소소(簫韶/韶箭/箭韶) : ① 중국 고대의 순임금이 지었다는 음악.② 중국 고대의 순임금이 만들었다는, 열 개의 대롱으로 된 악기.

97) 구성(九成) : 국악에서, 아홉 곡이 끝남을 이르는 말.종묘 제례의 강신악에는 희문(熙文)을 아홉 번 되풀이 연주하고, 문묘 제례의 영신악에는 황종궁 세 번, 중려궁 두 번, 남려궁 두 번, 이척궁(夷則宮) 두 번 모두 네 곡을 아홉 번 연주한다.

98) 용마(龍馬) : 용의 머리에 말의 몸을 하고 있다는 신령스러운 전설상의 짐승.중국 복희씨 때 황허강(黃河江)에서 팔괘(八卦)를 등에 싣고 나왔다는 준마이다.

99) 하도(河圖) : 복희씨 때 황하에서 길이 8척이 넘는 용마가 등에 지고 나왔다는 그림으로 주역 팔괘의 근원이 되었음.

100) 박석치(薄石峙) : 박석고개.땅이 질거나 풍수지리상 지맥을 보호하기 위하여 얇은 돌을 깔아 놓은 고개.박석고개는 여러 군데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창경궁의 북문인 월근문(月勤門)에서 명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듯함.

101) 태학관(太學館) : 성균관의 별칭.

102) 성균관(成均館) : 조선 시대에, 유학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공자를 제사하는 문묘와 유학을 강론하는 명륜당 따위로 이루어지며, 태조 7년(1398)에 설치하여 고종 24년(1887)에 경학원으로 고쳤다.가 융희 4년(1910)에 없앴다.반관(泮館)·태학(太學).

103) 명륜당(明倫堂) : 조선 시대에, 성균관 안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곳.

104) 부자(夫子) : 공자(孔子)를 높여 이르는 말.

105) 주벽(主壁) : 사당이나 사원(祠院)에 모신 여러 위패 중에서 주장되는 위패.

106) 안증사맹(顔曾思孟) : 공자의 종통을 이은 인물들.안회, 증자, 자사, 맹자.

107) 칠십이현(七十二賢) :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72명의 뛰어난 제자들.

108) 삼천문도(三千門徒) : 공자의 문하생이 3천 명이었다고 함.

109) 시위(侍衛) : 임금이나 어떤 모임의 우두머리를 모시어 호위함.또는 그런 사람.

110) 대현(大賢) : 매우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

111) 승무(陞廡) : 학덕(學德)이 있는 사람을 문묘(文廟)에 올려 함께 제사 지내던 일.

112) 일출이작(日出而作) 일입이식(日入而息) : <격양가>의 구절.해가 뜨면 농사짓고 해가 지면 쉬는 뜻.일출이작(日出而作) 일입이식(日入而息)

113) 함포고복(含哺鼓腹) :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여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말.

114) 남혼여가(男婚女嫁) : 아들은 장가들고 딸은 시집간다는 뜻으로, 자녀의 혼인을 이르는 말.

115) 태평연월(太平煙月) :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편안한 세월.

116) 계명구吠(鷄鳴狗吠) : 계견상문(鷄犬相聞).닭이 울고 개가 짖는다는 뜻으로, 인가(人家)가 잇대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7) 사경(四境) : 동, 서, 남, 북 사방의 지경이나 경계.

118) 현원씨(軒轅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처음으로 곡물 재배를 가르치고 문자·음악·도량형 따위를 정하였다고 한다.

119) 치우(蚩尤) : 중국에 전하는 전설상의 인물.신농씨 때에 난리를 일으켜 황제(黃帝)와 탁록(涿鹿)의

들에서 싸우면서 짙은 안개를 일으켜 괴롭혔는데 지남차를 만들어 방위를 알게 된 황제에게 패하여 잡혀 죽었다고 한다.후세에는 제나라의 군신(軍神)으로서 숭배되었다.

120) 탕무(湯武) : 은(殷)나라의 탕왕(湯王)과 주(周)나라의 무왕(武王).모두 자기가 섬기던 임금을 방벌하여 나라를 얻었음.

121) 서절구투(鼠竊狗偷) : 쥐나 개처럼 몰래 물건을 훔친다는 뜻으로,

122) 갑오년 동지(冬至) 참 원수로다 : 갑오년(1834년) 동짓달 13일은 순조(純祖)가 승하한 날.

123) 여상고비(如喪考妣) : 서경

124) 대왕대비(大王大妃) : 현종의 할머니, 곧 순조비(純祖妃)를 말함.1834년 순조가 죽자 현종이 8세로 즉위하였는데 순조의 비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金氏)가 수렴청정하였다.

125) 자성전하(慈聖殿下) : 익종의 비, 현종의 모후 신정왕후(神貞王后, 1808~1890), 1819년 세자빈에 책봉되고, 1834년 아들 현종이 즉위하자 왕대비가 되었으며, 1857년 대왕대비로 진봉되었다.

126) 태임(太妊) : 주(周) 나라 문왕(文王)의 어머니로 문왕을 임신했을 때 태교를 잘 했다고 함.유항(劉向)의

127) 선인황후(宣仁皇后) : 송 신종(宋神宗)의 비(妃).어린 철종(哲宗)을 도와 섭정(攝政)하면서 사마광(司馬光) 등 어진 이 등용에 힘써 여중요순(女中堯舜)이라는 말이 있었다.

128) 팔역(八域) : 온 나라.

129) 안연(晏然)하다 : 민심이 평화롭고 걱정 없이 편안하다.

130) 도광(道光) : 중국 청나라 선종 때의 연호(1821~1850).

131) 십칠년 신축년에 우리 성상 즉위하시어 : 도광 십칠

132) 춘추(春秋) :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

133) 방성(方盛) : 바야흐로 기세가 한창 일어남.

134) 십오 세에 : 현종은 8세에 즉위했으나 15세가 되어 친정(親政)을 시작했음.

135) 한소제(漢昭帝) : 유불릉(劉弗陵, 기원전 95년 ~ 기원전 47년).전한의 제8대 황제(재위 기원전 86년~기원전 74년)로, 한 무제와 구익부인 소생이다.기원전 86년 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다.

136) 주성왕(周成王) : 주나라의 2대 왕.역성혁명 후 불과 2년만에 사망한 아버지 무왕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다.

137) 천무열풍(天無烈風) 음우(淫雨) : 하늘에는 열풍(烈風)이나 장맛비가 없고.열풍(烈風)은

138) 해불양파(海不揚波) :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는다는 뜻으로, 임금의 선정(善政)으로 백성이 편안함을 이르는 말.

139) 가급인족(家給人足) : 집집마다 먹고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

140) 국태민안(國泰民安) :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

141) 입아증민(粒我蒸民) : 우리 뭇 백성에게 곡식을 먹임.

142) 돈화문(敦化門) : 창덕궁의 정문.서울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가운데 하나이다.보물 제383호.

143) 윤음(綸音) :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말.오늘날의 법령과 같은 위력을 지닌다.

144) 한무제(漢武帝) : 중국 전한(前漢) 제7대 황제(B.C.156~B.C.87).성은 유(劉).이름은 철(徹).묘호는 세종(世宗).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흉노를 외몽골로 내쫓는 등 여러 지역을 정벌하였으며,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동서 교류를 왕성하게 하였다.재위 기간은 기원전 141~기원전 87년이다.

- 145) 군생(群生) : ① 여러 백성.② 모든 생물.또는 모든 사람.
- 146) 성화(聖化) : 성인(聖人)이나 임금이 덕행으로써 사람이나 백성을 교화함.
- 147) 협탄비응(挾彈飛鷹) : 거문고와 사냥으로 소일함.
- 148) 격양가(擊壤歌) :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중국의 요임금 때에, 태평한 생활을 즐거워하여 불렀다고 한다.
- 149) 창해일속(滄海一粟) : 넓고 큰 바닷속의 좁쌀 한 알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있는 매우 하찮고 작은 것을 이르는 말.중국 북송의 문인 소식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 나오는 말이다.
- 150) 명년(明年) : 내년.
- 151) 삼춘(三春) : 봄의 석 달.맹춘(孟春), 중춘(仲春), 계춘(季春)을 이른다.
- 152) 우락중분(憂樂中分) 미백년(未百年)의 소년행락(少年行樂) 편시춘(片時春) : 근심과 즐거움이 뒤섞인 속에서 백년을 다 못사는 것이 인생이요, 젊어서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뜻.
- 153) 요순우탕(堯舜禹湯) : 고대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 하나라의 시조인 우임금, 은(殷)나라의 탕임금을 이룸.
- 154) 문무주공(文武周公) : 주(周)나라의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문왕은 중국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로 이름은 창(昌).기원전 12세기경에 활동한 사람으로 은나라 말기에 태공망 등 어진 선비들을 모아 국정을 바로잡고 용적(戎狄)을 토벌하여 아들 무왕이 주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주었다.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의 전형으로 꼽힌다.무왕은 중국 주나라의 제1대 왕(?~?).성은 희(姬).이름은 발(發).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주 왕조를 창건하여, 호경
- 155) 공맹안증(孔孟顏曾) : 공자, 맹자, 안회, 증자.
- 156) 정주부자(程朱夫子) :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와 주희를 아울러 이르는 말.정호(程顥, 1032~1085)의 자는 백순(伯淳), 호는 명도(明道), 시호는 순(純).허난성[河南省] 뤼양[洛陽] 출생.존칭으로 명도선생이라 불리고, 동생 정이(程頤)
- 157) 관천(貫穿) : 꿰뚫는다는 뜻으로, 학문에 널리 통함을 이르는 말.
- 158) 요마(玄麼) : 변변하지 못함.또는 그런 사람.
- 159) 진시황(秦始皇) : 중국 진(秦)나라의 제1대 황제(B.C.259~B.C.210).이름은 정(政).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하고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였다.중앙 집권을 확립하고, 도량형·화폐의 통일, 만리장성의 증축, 아방궁의 축조, 분서갱유 따위로 위세를 떨쳤다.재위 기간은 기원전 247~기원전 210년이다.
- 160) 아방궁(阿房宮) : 중국 진(秦)나라 시황제가 기원전 212년에 세운 궁전.유적은 산시 성(陝西省) 시안(西安) 서쪽에 있다.
- 161) 육국(六國) : 중국 전국 시대의 제후국(諸侯國) 가운데 진(秦)나라를 제외한 여섯 나라.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를 이른다.
- 162) 삼신산(三神山) :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산, 방장산(方丈山), 영주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진시황과 한무제가 불로불사약을 구하기 위하여 동남동녀 수천 명을 보냈다고 한다.이 이름을 본떠 우리나라의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이라 이르기도 한다
- 163) 돈절(頓絕) :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
- 164) 사구평대(沙邱平臺) : 하북성(河北省) 평향현(平鄉縣)의 동북쪽에 있는 지역.은나라의 주왕(紂王)이 신축한 대로 진시황이 죽은 곳.
- 165) 여산청총(驪山青塚) : 여산은 섬서성(陝西省) 임당현(臨潼縣)의 동남방에 있는 산.진시황을 장사

지낸 곳.

166) 우산(牛山)의 지는 해는 제경공(齊景公)의 눈물이라 : 춘추 시대 제 경공(齊景公)이 우산(牛山)에 올라가서 노닐다가 북쪽으로 국성(國城)을 굽어보고는 “이 아름다운 강산을 놔두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가 함께 옷깃을 적셨다는 고사가 있다.

167) 분수(汾水) : 산서성(山西省) 영무현(寧武縣) 서남의 관잠산(管涔山)에서 흘러내리는 물.

168) 추풍곡(秋風曲) : 추풍사(秋風辭)를 말함.중국 한나라 무제가 지은 작품.허동(河東)에 가서 후토(后土)에 제사 지낸 후에 여러 신하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읊은 것이라고 한다.

169) 한무제(漢武帝) : 중국 전한(前漢) 제7대 황제(B.C.156~B.C.87).성은 유(劉).이름은 철(徹).묘호는 세종(世宗).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흉노를 외몽골로 내쫓는 등 여러 지역을 정벌하였으며,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동서 교류를 왕성하게 하였다.재위 기간은 기원전 141~기원전 87년이다.

170) 용방(龍逢) : 관룡방(關龍逢)으로, 직간을 하다가 걸왕(桀王)에게 살해된 하(夏)나라의 현인이다.

171) 비간(比干) : 은(殷)나라 왕실의 종친으로, 포학하고 음란한 주왕(紂王)에게 간하다가 살해당했음.

172) 백이(伯夷) : 중국 은나라 말에서 주나라 초기의 현인(?~?).이름은 윤(允).자는 공신(公信).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치려고 했을 때, 아우인 숙제(叔齊)와 함께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자 수양산으로 들어가 굶어 죽었다.

173) 숙제(叔齊) : 중국 은나라 말기의 현인(賢人)(?~?).이름은 지(智).자는 공달(公達).주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주왕(紂王)을 치려고 할 때 형 백이(伯夷)와 함께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양산에 숨어 살다가 굶어 죽었다.

174) 천추(千秋) : 오래고 긴 세월.또는 먼 미래.

175) 고절(孤節) : 홀로 깨끗하게 지키는 절개.

176) 수양산(首陽山) : 중국 산시 성(山西省)의 서남쪽에 있는 산.주나라의 백이와 숙제가 절개를 지켜 은거하다가 굶어 죽은 곳이다.

177) 강태공(姜太公) : 태공망(太公望)

178) 황석공(黃石公) : 진(秦)나라 말기에 이상(垆上)에서 장량(張良)에게 병서를 주었다고 하는 노인.

179) 사마(司馬) :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명장 사마의(司馬懿).

180) 양저(讓菑) :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군사감찰.

181) 손빈(孫臏) : 중국 전국 시대 제나라의 무장(?~?).기원전 367년경 위나라 군사와 싸워 크게 이기고, 기원전 353년에 조나라를 도와 위나라 군사를 격파하였다.

182) 오기(吳起) : 중국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병법가(?B.C.440~B.C.381).증자(曾子)에게 배우고 노(魯)나라, 위(魏)나라에서 벼슬한 뒤에 초(楚)나라에 가서 도왕(悼王)의 재상이 되어 법치적 개혁을 추진하였다.저서에 병법서

183) 개자추(介子推) : 중국 춘추 시대의 은인(隱人)(?~?).진(晉)나라 문공(文公)이 공자(公子)일 때 19년 동안 함께 망명 생활을 하며 고생하였으나, 문공이 귀국하여 왕이 된 후 자신을 멀리하자 면산(緜山)에 들어가 숨어 살았다.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추가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산에 불을 질렀으나, 나오지 않고 타 죽었다고 한다.

184) 오자서(伍子胥) : 중국 춘추 시대의 초나라 사람(?~B.C.484).이름은 원(員).아버지와 형이 초나라 평왕(平王)에게 피살되자 오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았다.

185) 먹라수(汨羅水) : 중국 초나라의 굴원이 투신한 강.

186) 굴삼려(屈三閭) : 굴원(屈原).중국 전국 시대 초나라의 정치가·시인(?B.C.343~?B.C.277).이름은 평(平), 자는 원(原).초사(楚辭)라고 하는 운문 형식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모함을 입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다가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다.작품은 모두 울분이 넘쳐 고대 문학에서는 드물게 서정성을 띠고 있다.작품에 <이소(離騷)>, <천문(天問)>, <구장(九章)> 따위가 있다.

187) 소진(蘇秦) : 중국 전국 시대의 유세가(遊說家)(?~?).진(秦)에 대항하여 산둥(山東)의 6국인 연(燕), 조(趙), 한(韓), 위(魏), 제(齊), 초(楚)의 합종(合從)을 설득하여 성공했다.

188) 장의(張儀) : 중국 전국 시대 위(魏)나라의 정치가(?~B.C.309).귀곡 선생(鬼谷先生)에게서 종횡(縱橫)의 술책을 배우고, 뒤에 진(秦)나라의 재상이 되어 연횡책을 6국에 유세(遊說)하여 열국으로 하여금 진나라에 복종하도록 힘썼다.

189) 육국(六國) : 중국 전국 시대의 제후국(諸侯國) 가운데 진(秦)나라를 제외한 여섯 나라.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를 이른다.

190) 맹상군(孟嘗君) : 중국 전국 시대 제나라의 공족(公族)이며, 사군(四君)의 한 사람(?~B.C.278).재상(宰相)이 되었을 때 천하의 인재를 초빙하여 식객이 삼천 명에 이르렀다고 하며, 진(秦)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죽을 뻔하였으나 식객 중에 남의 물건을 잘 훔치는 사람과 닭의 울음소리를 잘 흉내 내는 사람이 있어 그들의 도움으로 죽음을 모면한 이야기로 유명하다.초나라의 춘신군, 조나라의 평원군, 위나라의 신릉군과 함께 전국(戰國) 말기 사군(四君)의 한 사람으로 불림

191) 계명구페(鷄鳴狗吠) : 여기에서는 계명구도(鷄鳴狗盜)의 뜻.비굴하게 남을 속이는 하찮은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중국 제나라의 맹상군이 진(秦)나라 소왕(昭王)에게 죽게 되었을 때, 식객(食客) 가운데 개를 가장하여 남의 물건을 잘 훔치는 사람과 닭의 울음소리를 잘 흉내 내는 사람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왔다는 데서 유래한다.

192) 신릉군(信陵君) : 중국 전국 시대 위(魏)나라의 정치가(?~B.C.244).이름은 무기(無忌).문하에 식객 3천 명을 거느렸다고 한다.제나라의 맹상군, 초나라의 춘신군, 조(趙)나라의 평원군(平原君)과 함께 전국(戰國) 말기 사군(四君)의 한 사람으로 불린다.

193) 일부토(一抔土) : 한 줌의 흙이라는 뜻으로,

194) 역발산(力拔山) : 힘이 산을 뽑을 만함.

195) 초패왕(楚霸王) : 항우(項羽).중국 진(秦)나라 말기의 무장(B.C.232~B.C.202).이름은 적(籍).우는 자(字)이다.숙부 항량(項梁)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유방(劉邦)과 협력하여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霸王)이 되었다.그 후 유방과 패권을 다투다가 해하(垓下)에서 포위되어 자살하였다.

196) 시불리혜(時不利兮) 추불서(騅不逝) : 초패왕이 해하에서 한군(漢軍)에게 패하여 자살할 때 우미인에게 지어준 노래.

197) 우미인(虞美人) : 중국 진(秦)나라 말기 항우의 총희(寵姬)(?~B.C.202).절세의 미인으로, 항우가 한(漢)나라 유방에게 해하에서 포위되었을 때 자살하였다고 한다.

198) 오강(烏江) : 우장(Wujiang).중국 안후이 성(安徽省) 동쪽 끝, 양쯔 강(揚子江)에 접하여 있는 도시.항우가 한(漢)나라 고조에게 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으로 유명하다.

199) 운주(運籌) : 주판을 놓듯이 이리저리 궁리하고 계획함.

200) 유악(帷幄) : ① 작전 계획을 짜는 곳.② 슬기와 꾀를 내어 일을 처리하는 데에 능한 신하.

201) 장자방(張子房) : 장양(張良).중국 한나라의 건국 공신(?~B.C.168).자는 자방(子房).한나라 고조

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여, 소하·한신과 함께 한나라 창업의 삼걸(三傑)로 일컬어진다.

202) 제갈공명(諸葛孔明) : 제갈량(諸葛亮).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정치가(181~234).자(字)는 공명(孔明).시호는 충무(忠武).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유비를 도와 오(吳)나라와 연합하여 조조(曹操)의 위(魏)나라 군사를 대파하고 파촉(巴蜀)을 얻어 촉한을 세웠다.유비가 죽은 후에 무향후(武鄉侯)로서 남방의 만족(蠻族)을 정벌하고, 위나라 사마의와 대전 중에 병사하였다.

203) 천문지리(天文地理) 중찰인(中察人) : 위로는 천문을, 아래로는 지리를, 가운데로는 사람의 일을 살핀다는 의미인 듯함.

204) 사마천(司馬遷) :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B.C.145~?B.C.86).자는 자장(子長).기원전 104년에 공손경(公孫卿)과 함께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여 후세 역법의 기초를 세웠으며, 역사책 '사기'를 완성하였다.

205) 한퇴지(韓退之) : 한유(韓愈).중국 당나라의 문인·정치가(768~824).자는 퇴지(退之).호는 창려(昌黎).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변려문을 비판하고 고문(古文)을 주장하였다.시문집에 '창려선생집' 따위가 있다.

206) 이태백(李太白) : 이백(李白).중국 당나라의 시인(701~762).자는 태백(太白).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젊어서 여러 나라에 만유(漫遊)하고, 뒤에 출사(出仕)하였으나 안녹산의 난으로 유배되는 등 불우한 만년을 보냈다.칠언 절구에 특히 뛰어났으며, 이별과 자연을 제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현종과 양귀비의 모란연(牧丹宴)에서 취중에 <청평조(淸平調)> 3수를 지은 이야기가 유명하다.시성(詩聖) 두보(杜甫)에 대하여 시선(詩仙)으로 칭하여진다.시문집에 '이태백시집'

207) 두자미(杜子美) : 두보(杜甫).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712~ 770).자는 자미(子美).호는 소릉(少陵)·공부(工部)·노두(老杜).율시에 뛰어났으며, 긴밀하고 엄격한 구성, 사실적 묘사 수법 따위로 인간의 슬픔을 노래하였다.'시성(詩聖)'으로 불리며, 이백(李白)과 함께 중국의 최고 시인으로 꼽힌다.작품에 <북정(北征)>, <병거행(兵車行)> 따위가 있다.

208) 관운장(關雲長) : 관우(關羽).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무장(?~219).자는 운장(雲長).장비, 유비와 의형제를 맺고 적벽전에서 조조의 군대를 격파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뒤에 위나라와 오나라의 동맹군에게 패한 뒤 살해되었다.

209) 명진천하(名振天下) : 이름을 천하에 떨침.

210) 명촉달조(明燭達朝) : 촛불을 밝혀 아침에 이르도록 글을 읽음.

211) 장익덕(張翼德) : 장비(張飛).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무장(?~221).자는 익덕(益德).유비(劉備), 관우와 함께 도원(桃園)에서 결의하고 왕인 유비를 항상 섬겼던 용장(勇將)으로, 후에 파서(巴西) 태수가 되었다.

212) 편비(偏裨) : 각 군영에 둔 부장(副將).

213) 조조(曹操) : 삼국 시대 위나라의 시조(始祖)(155~220).자는 맹덕(孟德).황건의 난을 평정하여 공을 세우고 동탁(董卓)을 벤 후 실권을 장악하였다.208년에 적벽(赤壁) 대전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크게 패하여 중국이 삼분된 후 216년에 위왕(魏王)이 되었다.권모에 능하고 시문을 잘하였다.

214) 손권(孫權) : 중국 삼국 시대 오나라의 초대 황제(182~252).자는 중모(仲謀).손견(孫堅)의 아들로 유비와 더불어 조조를 적벽에서 무찌르고 위와 제휴하여 제위에 올랐다.연호를 황룡(黃龍)이라 하고, 도읍을 건업(建業)으로 옮겨서 중국 남방 장쑤(江蘇) 일대를 다스렸다.재위 기간은 222~252년이다.

215) 동작대(銅雀臺) : 중국 후한 건안 15년 겨울에 조조가 업(鄴)의 서북쪽에 지은 누대(樓臺).구리로

만든 봉황으로 지붕 위를 장식한 데에서 생긴 말이다.

216) 석두성(石頭城) : 오나라 손권이 쌓은 성.

217) 부춘산(富春山) : 엄자릉이 은거하던 곳.

218) 엄자릉(嚴子陵) : 엄광(嚴光). 후한의 여요(餘姚) 사람. 호는 자릉(子陵). 어릴 때 광무제(光武帝)와 같이 공부했는데, 광무제가 즉위하자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사는 것을 광무제가 찾아 간의대부(諫議大夫)를 제수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춘산(富春山)에 은거했다. 후세 사람이 그의 낚시질하던 곳을 일러 엄릉뢰(嚴陵瀨)라 하였다.

219) 도연명(陶淵明) : 중국 동진의 시인(365~427). 이름은 잠(潛). 호는 오류선생(五柳先生). 연명은 자(字). 405년에 팽택현(彭澤縣)의 현령이 되었으나, 80여 일 뒤에 <귀거래사>를 남기고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하였다. 자연을 노래한 시가 많으며, 당나라 이후 육조(六朝) 최고의 시인이라 불린다. 시 외의 산문 작품에 <오류선생전>, <도화원기> 따위가 있다.

220) 연자(燕子) : 제비.

221) 곽분양(郭汾陽) : 이름은 자의(子儀)로, 당(唐) 나라 현종(玄宗) · 숙종(肅宗) 때 사람. 한 몸으로 천하의 안위를 맡게 됨이 20여 년이었으며 벼슬이 태위(太尉) 중서령(中書令)에 이르렀고 분양군왕(汾陽群王)을 봉하여 세상에서 곽분양(郭汾陽)이라 명칭한다.

222) 백자천손(百子千孫) :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

223) 도주(陶朱) : 도주공(陶朱公). 범여(范蠡)의 다른 이름. 중국 춘추 시대 월나라의 재상(?~?). 자는 소백(少伯). 회계(會稽)에서 패한 구천(句踐)을 도와 오왕(吳王) 부차(夫差)를 멸망시키고 후에 산둥(山東)의 도(陶)에 가서 도주공(陶朱公)이라고 자칭하고 큰 부(富)를 쌓았다.

224) 의돈(猗頓) : 춘추 시대 노(魯)나라 사람. 도주공(陶朱公)

225) 석숭(石崇) : 중국 서진(西晉)의 부호(富豪)(249~300). 자는 계륜(季倫). 형주(荊州) 자사(刺史)를 지냈고, 향해와 무역으로 거부가 되었다.

226) 월서시(越西施) : 중국 춘추 시대 월나라의 미인(?~?). 오나라에 패한 월나라 왕 구천이 서시를 부차에게 보내어 부차가 그 용모에 빠져 있는 사이에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227) 우미인(虞美人) : 중국 진(秦)나라 말기 항우의 총희(寵姬)(?~B.C.202). 절세의 미인으로, 항우가 한(漢)나라 유방에게 해하에서 포위되었을 때 자살하였다고 한다.

228) 왕소군(王昭君) : 중국 전한 원제(元帝)의 후궁(?~?). 이름은 장(嬙). 소군은 자. 기원전 33년 흉노와의 화친 정책으로 흉노의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와 정략결혼을 하였으나 자살하였다. 후세의 많은 문학 작품에 애화(哀話)로 윤색되었다.

229) 양귀비(楊貴妃) : 중국 당나라 현종(玄宗)의 비(妃)(719~756). 이름은 옥환(玉環). 도교에서는 태진(太真)이라 부른다. 춤과 음악에 뛰어났고 총명하여 현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안녹산의 난 때 죽었다.

230) 경국지색(傾國之色) : 임금이 혹하여 나라가 기울어져도 모를 정도의 미인이라는 뜻으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미인을 이르는 말.

231) 월태화용(月態花容) :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맴시를 이르는 말.

232) 양자(樣姿) : 겉으로 나타난 모양이나 모습.

233) 진애(塵埃) : ① 티끌과 먼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세상의 속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4) 팽조(彭祖) : 요(堯) 임금 때부터 하(夏)를 거쳐 은(殷) 나라 말기까지 8백년을 살았다는 옛날의 장수자(長壽者)이다. '神仙傳 1'

- 235) 삼천갑자(三千甲子) : 육십갑자의 삼천 배. 곧 18만 년을 이른다.
- 236) 동방삭(東方朔) : 중국 전한(前漢)의 문인(?B.C.154~?B.C.93). 자는 만천(曼倩). 해학 · 변설(辯舌) · 직간(直諫)으로 이름이 났다.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장수하였으므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이른다.
- 237) 안기생(安期生) : 동해의 선산(仙山)에서 살았다는 고대의 전설적인 선인(仙人)의 이름이다.
- 238) 적송자(赤松子) : 신농씨 때에, 비를 다스렸다는 신선의 이름.
- 239) 사호선생(四皓先生) : 상산사호(商山四皓). 중국 진시황 때에 난리를 피하여 산시 성(陝西省) 상산(商山)에 들어가서 숨은 네 사람. 동원공, 기리게, 하황공, 녹리 선생(甬里先生)을 이른다. 호(皓)란 본래 희다는 뜻으로, 이들이 모두 눈썹과 수염이 흰 노인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사호02(四皓).
- 240) 상산(商山) : 사호선생(四皓先生)이 진시황 때의 난리를 피하여 들어갔다는 산.
- 241) 일경(一境) : 한 나라. 또는 어떤 곳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
- 242) 구갈(口渴) : 목이 마름.
- 243) 요순(堯舜) :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 244) 사흉(四凶) : 요임금 때 네 명의 악인(惡人). 공공(共工), 환두(驩兜), 삼묘(三苗), 곤(鯀) 등을 말함. 공공은 궁기(窮奇), 곤은 도울(橈杻), 삼묘는 도철(饕餮)이라고도 함.
- 245) 제위왕(齊威王) : BC.357~320, 38년간 재위한 제나라의 현군.
- 246) 명감(明鑑) : 사물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관찰력. 또는 그런 관찰. 뛰어난 식견.
- 247) 아대부(阿大夫) : 전국 시대 제(齊) 나라 아(阿) 고을의 대부. 그는 아에서 악정을 행하고도 뇌물을 써서 선정을 한 것으로 평가가 나도록 하였는데, 결국 발각되어 가마솔에 삶기는 형벌에 처해졌다.
- 248) 아대부(阿大夫) 있다는 말인가 : 제(齊) 나라 위왕이 아대부(阿大夫)를 불러 말하기를, “네가 아(阿)지방에 임명되어 간 뒤에 칭찬하는 말이 매일 들어옴으로 사람을 시켜 가서 살피게 하였더니, 아(阿)지방에는 농토가 목어 있고 정치가 잘못되었으니 이것은 네가 나의 좌우에게 뇌물을 주어 칭찬하게 만든 것이다.” 하고 곧 아대부를 삶아 죽였다. 다시 즉묵대부(卽墨大夫)를 불러 말하기를, “너는 아대부와 상반되니 어진 신하이다.” 하고 벼슬을 올려 주었다.
- 249) 일월이 밝건마는 복분(覆盆)에 난조(難照)하고 : 뒤집힌 그릇을 비추기는 어려움.
- 250) 춘양(春陽) : 봄볕.
- 251) 음애(陰崖) : 햇빛이 들지 아니하는 낭떠러지나 언덕.
- 252) 이재가(李在稼) : 정유년(헌종 3년, 1837)부터 신축년(헌종 7년, 1841)까지 거창 수령으로 재직했던 인물. 이재가(1783~1865)는 청백리의 후예로서 광능참봉으로 봉해졌다가 안주목사를 지냈으며 80세 되던 임술년(1862)에는 조관(朝官)으로서 통정대부 돈녕부 도정에 봉해졌다.
- 253) 제리(諸吏) : 모든 아전.
- 254) 간리(奸吏) : 간사한 관리나 공리(公吏).
- 255) 책방(冊房) : 고을 원의 비서 일을 맡아보던 사람. 관제(官制)에는 없는데 사사로이 임용하였다.
- 256) 취방(取房) : 재물을 수취(收取)한다는 의미에서 쓴 말.
- 257) 구중(九重) : 구중궁궐(九重宮闕).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있는 대궐 안을 이르는 말.
- 258) 민정(民情) : 백성들의 사정과 생활 형편.
- 259) 징청각(澄淸閣) : 정치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집이라는 뜻에서 감영을 달리 부르는 말.

- 260) 관풍찰속(觀風察俗) : 풍속을 자세히 살펴봄.
- 261) 순상(巡相) : 순찰사(巡察使).① 조선 시대에, 병란(兵亂)이 있을 때 왕명으로 지방의 군무(軍務)를 순찰하던 임시 벼슬.② 조선 시대에, 도(道) 안의 군무를 순찰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각 도의 관찰사가 겸임하였다.
- 262) 읍보(邑報) : 고을의 관부에서 올리던 보고.
- 263) 준신(遵信) : 그대로 좇아서 믿음.
- 264) 문불서양(問佛西洋) : 부처를 서양에 묻는다는 뜻으로,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엉뚱한 일이라는 말.
- 265) 이노포(吏奴逋) : 아전이나 관노 등이 포탈한 돈이나 곡식.
- 266) 포흠(逋欠) :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 버림.
- 267) 두승곡(斗升穀) : 한 말이나 한 되, 즉 보잘것없는 양의 곡식.
- 268) 대전통편(大典通編) : 조선 시대에, 김치인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책.'경국대전',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수교집록', '속대전'을 한데 모은 것이다.6권 5책.
- 269) 방채전(放債錢) : 지방 관청의 예상치 못한 대사(大事)에 쓰기 위해 마련한 지척전(支勅錢)가운데 필요한 액수만 남겨 놓고 나머지를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던 돈.
- 270) 이포(吏逋) : 구실아치가 공금을 집어쓴 빚.
- 271) 결복(結卜) : 조선 시대에, 토지세 징수의 기준이 되는 논밭의 면적에 매기던 단위인 결, 짐, 뭇을 통틀어 이르는 말.
- 272) 징출(徵出) : 세금이나 빚 따위를 갚지 못할 때에 그 친척이나 관계자에게 물어내게 하던 일.
- 273) 왕세(王稅) : 나라에 바치던 조세.
- 274) 요망(妖妄) : ① 요사스럽고 망령됨.② 언행이 방정맞고 경솔함.
- 275) 작간(作奸) : 간악한 꾀를 부림.또는 그런 짓.
- 276) 호수(戶首) : 땅 여덟 결(結)을 한 단위로 하여 공부(貢賦)를 바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 277) 수쇄(收刷) : 수봉(收捧).세금을 징수함.
- 278) 삼가(三嘉) : 현재 경남 합천군 남부에 있는 면.
- 279) 합천(陝川) : 경상남도 북서부에 있는 군.거창과 인접해 있으며 조선시대의 합천군, 초계군, 삼가현 등 3개 군현이 합하여 이루어진 곳.
- 280) 안의(安義) : 안음현(지금의 경남 함양군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거창군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 일대)의 조선 후기 이름.
- 281) 지례(知禮) : 경상북도 지례면, 구성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일대에 있던 옛 고을.
- 282) 낙강(落江) : 제방이 무너지거나 범람하는 것.
- 283) 성천(成川) : 성천복사(成川覆沙).개천으로 되어버린 전지(田地)와 모래가 덮여버린 전지를 말한다.이럴 경우 면결(免結)되었다.
- 284) 구산(丘山) : 물건이 많이 쌓인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85) 재(災) : 수재(水災)나 한재(旱災) 등으로 전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받게 되는 조세 감면의 혜택.
- 286) 한짐 : 한 짐은
- 287) 재결(災結) : 가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
- 288) 회감(會減) : 서로 주고받을 것을 셈 쳐 보고 남은 것을 셈함.

- 289) 묘당(廟堂) : 의정부
- 290) 투식(偷食) : ① 공금이나 공곡(公穀)을 도둑질하여 먹음.②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먹고 지냄.
- 291) 악생포(樂生布) : 악생보포(樂生保布). 조선 시대에, 악생의 봉족(奉足)이 바치던 베. 악생에게 급료로 주었다.
- 292) 악생포 한 당번(當番)을 일향(一鄉)이 편침(編侵)하니 : 한 고을을 엮어매어 침탈하며.
- 293) 모야무지(暮夜無知) : 이슬한 밤에 하는 일이라서 보고 듣는 사람이 없거나 알 사람이 없음.
- 294) 탕산(蕩產) : 탕진가산. 집안의 재산을 모두 써서 없애 버림.
- 295) 선무포(選武布) : 선무군관(選武軍官)의 보포. 지방 향군 중에서 선출된 군관을 선무군관이라 하며, 이 군관에게 주던 보포를 말한다.
- 296) 제번포(除番布) : 번상(番上)의 의무를 면해 주는 대가로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에 치르던 포목.
- 297) 인리포(人吏布) : 인리보(人吏保)가 바치던 베나 무명.
- 298) 노령포(奴令布) : 노령보포(奴令保布). 지방 관아의 관노와 사령에게 급여된 보인(保人)들이 바치던 베나 무명.
- 299) 침책(侵責) : ①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함.② 조선 시대에, 물품을 거두어 들일 때 트집을 잡아 술이나 돈을 청하던 일.
- 300) 김담사(金淡沙)리 박담사(朴淡沙) : 군정(軍政)의 폐단을 빚어내던 가명(假名)과 허록(虛錄)의 예다.
- 301) 큰 아기 작은 아기 :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이 이미 군적(軍籍)에 오르는 일. 즉 황구첨정(黃口簽丁)을 말한다.
- 302) 작청(作廳) : 길청(廳). 군아(郡衙)에서 구실아치가 일을 보던 곳
- 303) 관차(官差) : 관아에서 파견하던 군뢰(軍牢), 사령(使令) 따위의 아전.
- 304) 이교(吏校) : 조선 시대에, 서리와 장교를 통틀어 이르던 말. 중인 신분으로 양반과 양민의 중간을 차지하였다.
- 305) 양역(良役) : 조선 시대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역(公役). 노역에 종사하는 요역(徭役)과 군사적인 목적의 군역(軍役)이 있었다.
- 306) 황구첨정(黃口簽丁) : 조선 후기에, 군정(軍政)이 문란해져서 어린아이를 군적(軍籍)에 올려 군포를 징수하던 일.
- 307) 생민가포(生民價布) :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던 가포.
- 308) 백골징포(白骨徵布) : 조선 후기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과 세금 대장에 올려놓고 군포(軍布)를 받던 일.
- 309) 고총(古塚) : 오래된 무덤.
- 310) 노방(路傍) : 길가
- 311) 강시(僵屍/殭屍) : ① 얼어 죽은 시체.② 쓰러져 있는 시체.
- 312) 폭양(曝陽) : 뜨겁게 내리쬐는 별을 쬐. 또는 그 별.
- 313) 치민(治民) : 백성을 다스림.
- 314) 남살(濫殺) :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죽임.
- 315) 장하(杖下) : 예전에, 곤장으로 매를 맞는 그 자리.

- 316) 적원(積怨) : 오랫동안 원망을 쌓음.또는 그런 원망.
- 317) 적화면(赤花面) : 적화현(赤花縣).지금의 경남 합천군 아로면 일대.
- 318) 선무포(選武布) : 선무군관(選武軍官)의 보포.지방 향군 중에서 선출된 군관을 선무군관이라 하며, 이 군관에게 주던 보포를 말한다.
- 319) 면임(面任) : 조선 시대에, 지방의 면에서 호적과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사람.
- 320) 수쇄(收刷) : 수봉(收捧).세금을 징수함.
- 321) 광언(狂言) : 상식을 벗어나 미친 듯이 말함.또는 그런 말.
- 322) 패담(悖談) : 사리에 어긋나게 말함.또는 그런 말.
- 323) 두발부예(頭髮扶曳) : 머리털을 끌어 잡고 휘두르며 싸움.
- 324) 삼생연분(三生緣分) : 삼생을 두고 끊어지지 않을 깊은 인연.부부간의 인연을 이른다.
- 325) 만리전정(萬里前程) : 만 리까지 펼쳐진 앞길이라는 뜻으로, 젊은이의 희망이 가득 찬 앞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26) 정문(旌門) :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327) 대살(代殺) : 살인자를 사형에 처함.
- 328) 천음우습(千陰雨濕) :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려서 축축함.
- 329) 설원(雪冤) : 원통한 사정을 풀어 없앴.
- 330) 청상(靑孀) : 청상과부(靑孀寡婦).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된 여자.
- 331) 백수(白手) :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32) 옆옆이 : 이 옆 저 옆에.
- 333) 가포(價布) : 조선 시대에, 역(役)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 대신으로 군포에 준하여 바치던 베.
- 334) 차사(差使) : ① 임금이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 벼슬.또는 그런 벼슬아치.② 고을 원이 죄인을 잡으려고 내보내던 관아의 하인
- 335) 대공(大空) : 높고 넓은 하늘.
 - 1) 정금(整襟) : 옷깃을 여미어 모양을 바로잡다.
 - 2) 낙교(洛橋) : 중국 하남성의 낙수(洛水)강에 놓인 천진교(天津橋)를 이르는 말.
 - 3) 청운(靑雲) : 높은 지위나 벼슬을 이르는 말.
 - 4) 환해풍파(宦海風波) : 벼슬살이에서 겪는 갖가지 험한 일.
 - 5) 초강어부(楚江漁夫) : 초강은 지금의 양자강을 말하며, 초강어부는 굴원이 지은 <어부사>에 등장하는 상강(湘江)의 어부를 말한다.
 - 6) 독조한강(獨釣寒江) : 차가운 강에서 혼자 낚시를 하는 것.
- 336) 용천검(龍泉劍) : 옛날 장수들이 쓰던 보검(寶劍).
- 337) 일산(日傘) : ①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세우는 큰 양산.우산보다 크며 놀이할 때에 한데에다 세운다.② 황제, 황태자, 왕세자 등이 행차할 때 받치던 의장 양산.자루가 길고 황색, 적색, 흑색의 비단으로 만들었다.③ 감사, 유수, 수령 등이 부임할 때 받치던 양산.자루가 길고 흰 바탕에 푸른 선을 둘렀다.
- 338) 전배(前陪) : 벼슬아치가 행차할 때나 상관을 배견할 때에 앞을 인도하던 관리나 하인.
- 339) 고각성(鼓角聲) : 군중(軍中)에서 호령할 때 쓰던 북과 나발의 소리.
- 340) 편월(片月) : 조각달.
- 341) 백양(白楊) : ① ‘황철나무’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② 사시나무.③ 은백양(銀白楊).

- 7) 삼강(三綱) : 유교도덕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도리를 뜻하는 것으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삼강에는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는 군위신강(君爲臣綱),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는 부위자강(父爲子綱),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는 부위부강(夫爲婦綱)이 있다.
- 8) 오륜(五倫) : 유교에서 이르는 다섯 가지의 인륜(人倫)으로 부자(父子) 사이의 친애(親愛), 군신(君臣) 사이의 의리, 부부 사이의 분별, 장유(長幼) 사이의 차서(次序), 붕우(朋友) 사이의 신의를 이른다. 이러한 오륜에는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이 있다.
- 9) 순임금 :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제왕으로 삼황오제(三皇五帝)신화 가운데 마지막 군주이다.
- 10) 일거무교(逸居無教) : 편하게 살면서 가르치지 않는다.
- 11) 성현(聖賢) : 성인(聖人)과 현인(賢人)을 함께 이르는 말.
- 12) 삼절위편(三絶韋編) : 공자가 가죽 끈으로 묶은 책을 세 번이나 끊어지도록 읽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말로 한권의 책을 수 십 번 되풀이해서 읽는 것을 뜻한다.
- 13) 문장(文章) : 문장가.
- 14) 식자(識者) : 학식, 견식, 상식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
- 15) 인생팔세(人生八世)개입소학(皆入小學) : 사람이 태어나서 8세가 되면 모두 소학을 배워야 함을 뜻하는 말이다.
- 16) 주희(朱熹) : 중국 남송의 유학자로 주자(朱子)라는 존칭으로도 불린다.유학을 집대성하였으며
- 17) 어로불변(魚魯不辨) : 글자 어(魚)와 로(魯)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8) 막여(莫如) : ~만 같은 것이 없다.
- 19) 무괴(無怪) : 괴이할 것이 없다.
- 20) 자포자기(自暴自棄) :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음.
- 21) 맹부자(孟夫子) : 맹자.
- 22) 만고문장(萬古文章) :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빛날 문장가(文章家).
- 23) 근고(勤苦) : 몸과 마음을 다하여 부지런히 애씀.
- 24) 간서(看書) : 책을 소리내어 읽지 않고 눈으로 읽음.
- 25) 이태백(李太白) :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청련거사(淸漣居士)라고도 한다.두보(杜甫)와 더불어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꼽힌다.현재 약 1100여수의 시들이 남아있다.
- 26) 마저성침(摩杵成針) : 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함을 뜻한다.
- 27) 둔인(遁人) : 은둔(隱遁)하고 있는 사람.
- 28) 극변(劇變) : 격변(激變)
- 29) 식목실(食木實) :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
- 30) 신농씨(神農氏) : 중국 고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제왕 삼황(三皇) 중 한명으로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 신농씨라고 하였다.
- 31) 교인화식(敎人火食) : 사람들에게 화식(火食)하는 법을 가르치다.
- 32) 함포고복(含哺鼓腹) :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여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는 말.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